



### 6 Focus

특별기획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홍콩대학교 불교학 연구소장 정인스님  
아시아 최고의 연구성과를 자랑하는 홍콩  
대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 동대신문

### 금주일언

욕심에 끌리고 소망에 불들린 사람이 어떻게 자  
기의 견해를 초월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완  
전하다고 생각한 바를 그대로 행한다. 그는 또  
한 아는 대로 떠러져 달 것이다.  
스나니따라 대품

www.dgupress.com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제1485호 2009년 (불기 2553년) 12월 7일 월요일

## Cover Story 제 42대 총학생회에 대한 제언

# 학생들이 공감하는 총학생회 건설해야 한다



▲ 지난 27일 중강당에서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선거개표가 열렸다. 선거기간을 하루 더 연장했지만 투표율은 50%를 가까스로 넘겼다.

## 체계적 사업진행으로 성과 이뤄야 실천으로 보여주는 총학 건설 필수

제 42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  
거에서 박인우 - 황주상 조가 투표  
인원 6,151명 중 5,240명이 찬성(투  
표율 50.28%, 득표율 85.69%)해 당  
선(當選)됐다. 2년 연속으로 총학이  
건설됐지만 그 과정에서 선거 기간  
을 하루 연장해 가까스로 50%를 넘  
기는 등 그리 순탄(順坦)하지 않은  
않았다. 최근 타 대학에서 발생하  
는 불법·부정 선거들을 계기로 총  
학들의 위신(威信)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잇따르는 추문  
(醜聞)으로 '총학 무용론'까지 제기  
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속  
에서 출범하게 될 42대 총학은 학생  
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

을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  
이다. 이를 위해선 이전의 총학생회  
와는 차별화된 42대 총학생회만의  
특색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학생사  
회의 주문이다. 42대 총학의 경우 41  
대 총학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보다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총학이 되겠  
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학생  
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진지한  
성찰(省察)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참여에 의한 학생회 운  
영은 학생회의 존재목적이다. 왜  
학생들이 무관심한지, 학생들이 필요  
로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더욱 세심

하게 살피고 여론을 듣는 자세가 어  
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1대 총학은 올 한 해 동안  
계절학기 등록금 인상 문제와 학제  
개편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와 갈등  
을 빚었다. 문제는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속에서 문제를 풀  
어가는 자세와 정책적 대안을 얼마  
나 보여줬느냐는 것이다. 차기 총  
학은 보다 문제의 본질(本質)에 접  
근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금과 학제 개  
편 문제 모두 양 측 간에 첨예(尖銳)  
한 입장 차이가 있다. 그 입장 차이  
를 좁히기 위해서 총학 스스로 제도  
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모색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2010학년도 등록금 책정 문  
제는 차기 총학생회가 맞게 될 첫 번  
째 과제가 될 것이다. 사실 등록금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  
육재정문제가 관련되어 있고, 대학  
당국과 재단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  
다.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투쟁이 아  
니라, 등록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  
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

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는 학술, 문화 사업을 실천력있게 준  
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축제때만 되  
면 반복되는 캠퍼스의 슬판문화, 연  
예인 초청을 통해 관객수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축제행사는 대  
학 본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내  
실을 기할 수 있는 학과나 동아리의  
학술행사나, 동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획과 모색이 절실하다.  
언제인가부터 학생회가 힘을 잃어  
가고 있다. 학생들은 점점 학생회로  
부터 멀어져가기 시작했고, 학생회  
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적어지기 시  
작했다. 학생회비는 점점 적게 걷히  
고 이에 따라 학생회는 동력을 잃어  
가고 있다. 학생회가 이렇게 된대  
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  
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한 것  
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진지한 성찰과  
학술, 그리고 대화를 통해 학생회가  
학생들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게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정용재 기자 wonder@dgu.edu



▲ IEEE 석학회원으로 선임된 전자공학과 이진구 교수.

## 전자공학과 이진구 교수, IEEE 석학회원으로 선임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 직접회로 연구성과 인정받아

우리대학 전자공학과와 이진구  
교수가 미국 전기 전자 공학회 (이하  
IEEE)의 석학회원으로 선임(選任)  
됐다. IEEE는 지난 11월 이사회를  
열고 이진구 교수를 석학회원으로  
선정했으며, 석학회의 실질적인  
자격은 2010년 1월 1일부터 부여(賦  
與)될 것이라고 이 교수에게 통보했  
다. IEEE는 전기·전자·컴퓨터·정

통신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  
모의 학회로, 자신의 전공 관련 분  
야에서 특별한 연구업적을 남긴 소  
수의 학자에게만 매년 석학회의원  
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진구 교수는 갈  
륨비소 화합물 반도체,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 직접회로에 관한 탁  
월한 연구개발을 인정받아 IEEE의  
석학회원이 됐다.

이진구 교수는 또, 정부로부터 밀  
리미터파와 신기술 연구센터(MINT)  
를 유지해 III-V족 갈륨비소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와 밀리미터파 집적회로를 연  
구 개발한 업적을 인정받아 과학기  
술훈장 진보장을 수훈(受勳)한 바  
있다.  
▶관련기사 8면  
이슬비 기자 beeya@dgu.edu

##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 2 국가품질경영상 교육부 대통령상 표창
- 4 자기추천 전형 선발된 10학번 신입생 좌담회
- 5 멀티미디어 음악 공연 '보는 소리, 듣는 영상'
- 6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 홍콩대학교
- 9 수난의 시대 사진자료 엮은 '석굴암 백년의 빛' 출간
- 12 우리대학에 기부한 김주필 교수의 거미박물관을 찾아서

이번주 신문이 이번 학기 종강호입니다.  
1486호는 2010년 1월 1일자 신년호로 발행됨을 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비추는 동국의 힘-박영석 편]

## 도전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 히말라야 14좌 원정 후 인터뷰 -

한계를 넘기 위해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  
꿈을 크게 꾸는 사람, 포기 모르는 사람.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십시오.  
시대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침없이 끊임없이  
동국대학교**

**박영석**  
1983년 동국대학교 입학  
2003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 석사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 원정, 3극점 도달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원정, 신악 그랜드슬램 달성

- 입산 의생명과학캠퍼스 건립 시작  
경기도와 고양시, 동국대가 공동 추진 중인 고양 메디클러스터로 의생명과학캠퍼스와 입산병원 중심의 의료복합단지 조성
- 학문간 장벽 파괴 / 미래수요 대비 16개 전공 학문재편  
세분화된 학과구조에서 학문간 융복합구조  
급변해가는 수요자 위주 학문 구조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학제개편
- 현지 학기제  
한 학과의 학생전원이 해외대학에 한 학기씩 수학하는 현지학기제도

- 대형국고지원사업 수주 최근 5개 과제, 320여억 원 규모  
신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선정 /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선정  
융합파이오니아 사업 선정 / 신기술창업집적사업 선정  
2009 미래기반 기술개발사업 선정
- 장학금 증가폭 전국 5위 •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선정
- 교수전원(1,049명) 강의평가공개로 최상의 강의 제공
- 상시정원관리제로 학과 경쟁력 지속적 상승

**동국대학교 201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서울캠퍼스 | 원서접수 2009. 12. 18(금)~12. 23(수) 17:00  
www.dongguk.edu | http://psi.dongguk.edu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세상을 비추는 힘 **dongguk**  
세상을 깨우는 이름 UNIVERSITY

# 국가품질경영대상 교육부문 대통령표창

## 고객, 효율, 성과 중심의 혁신경영도입 높게 평가받아



▲ 지난 25일 한진수 경영부총장이 국가품질경영대상 교육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09년 국가품질경영대상'에서 올해 신설(新設)된 품질경영대상 교

육부문에 선정(選定)돼, 국내 대학으로는 최초로 대통령 표창(表彰)을 받았다.

지난 25일 코엑스 오디토리움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한진수 경영부총장이 참석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시상(施賞)한 교육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품질경영대상은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나 우수(優秀)기업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국내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지닌다는 점에서 우리대학의 수상은 의미가 자못 크다.

경영과정과 시스템의 우수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評價)하는 국가품질경영대상은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말콤 볼드리지'라는 상에 비견(比肩)되는 상이다.

이번에 신설된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대학과 성균관대학이 각각 수상했다.

우리대학은 △자율·책임경영 △BSC기반의 통합적 성과 평가 △대학최초 CS경영을 시행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학습 성과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교육부문 최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은 고객, 효율, 성과 중심의 혁신경영도입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하여 대학경영의 틀을 혁신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와 졸업생을 배출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 고객만족경영대상 최우수상 수상

## 2년 연속... CS 경영 활동 높이 평가

우리대학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제17회 고객만족경영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受賞)하는 쾌거(快舉)를 달성했다. 고객만족경영대상은 고객만족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선반적으로 학습 성과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고객만족경영대상 시상식은 지난 24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진수 경영부총장 및 CS 경영팀, 학생 모니터링단 등화 등이 참석했다.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외부에서 우리대학을 공정하게 평가해 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본 상은 고객만족경영대상, 경영품질대상, 생산성대상 등 총 세 부문으로 나뉘며 34개 기업의 경영자가 수상한다.

우리대학은 대학 최초로 CS경영팀을 지난 해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 CS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評價)를 받았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 회전문대

#### 공약뚫고 실천키

○...월요 문화산책의 MC, 이동국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방영예정인 시트콤, '공약뚫고 실천키' 인데요. 이 시트콤은 제 42대 총학생회가 당선된 이후 활동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담아냈다고 합니다. 과연 총학생회는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그 결말은 '공약뚫고 실천키'를 통해서 보시죠!

#### 스펙업! 동국 홈페이지

○...안녕하십니까? 동국 뉴우스입니다. 취임난 속에 4개 국어를 구사하는 홈페이지가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구사하는 동국 홈페이지. 그렇다면 면접관인 중국인 유학생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왕징징 "우리 나라말 홈페이지 좋다해~ 징징, 당장 뵙으라해 징징!" 이에 가만히 듣고 있던 동국 홈페이지 왈 "남들보다 앞서가려면 4개 국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 백열등의 비애

○...우리학교에는 몇몇 사람들만 아는 비밀의 물건이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학생회관 샤워실을 전력효율이 낮은 백열전구가 밝히고 있는 중이라고. 옥상정원 가꾸기 등 에코캠퍼스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건 안티에코 캠퍼스.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전력효율 높고 밝은 형광등으로 바꿔주심이 어떨는지(!)"

#### 한 예술가의 비애

○...MB의 허를 찌 내민 그림 170컷을 이어붙여 만든 대형 삼, 삼칠공화국이라는 작품. 한 실치미술 작가의 야심찬 작품이란다... 4대강 삼칠하던 사람들은 전시실을 폐쇄하고, 작가는 철거를 운몽으로 막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를 본 회전문대자 왈, "예술마저 감시받는 빅브라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 산학협력단 교과부 장관상 수상

###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참가한 학생 3팀 장려상 수상

우리대학 산학협력단이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특허청이 주최하는 '2009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반사판을 구비한 밀리미터파 영상화 시스템'(발명자 이진구(전자공학) 교수 외 2명)의 특허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受賞)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한 이번 특허는 반사판을 회전시켜 검색 대상으로부터 밀리미터파 신호를 수신해 영상을 구현(具顯)하는 기술이다. 이 특허 기술은 인체에 피해 없이 은닉물체를 검색할 수 있어 공항 및 보안 등의 보안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고, 압 진단 등 의료분야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술이다. 이번 대회에 특허를 출품한 산학협력팀 김효성 변리사는 "특허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 출품했는데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이번 특허 기술을 개발한 이진구 교수는 "제가 개발한 기술이 인정받은 것 같아 자랑스럽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의 특허전략수립 부문에서 우리대학 학생 3팀이 각각 장려상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각 기업이 출제한 세부적 기술주제에 대해 국내·외 특허 기술과 기술 개발의 동향을 분석(分析)해, 기업의 연구 전략 및 특허획득 방향에 대해 논문(論文)을 쓰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신충환(일반대학원 물리학 석사과정) 팀은 (주)탐엔지니어링에서 출제한 '양자점 응용기술 및 LED 및 Solar Cell 기술분야의 핵심특허'에서 수상했다. 또한 강성민(물리3) 팀은 (주)한화석유화학에서 출제한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Laser 기술 적용'의 주제로 수상했으며, 신재선(생화공4) 팀은 (주)OCI에서 출제한 'Silicon wafer 생산공정에서 발생

하는 slurry로부터 Si회수'의 주제로 장려상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 우리대학 일문·중문 홈페이지 신설(新設)

우리대학의 일문·중문 홈페이지가 신설되는 등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가 체계화 될 전망이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일문·중문 홈페이지가 개설(開設)돼 운영 중이다. 국제교류팀의 김상우 계장은 "영어가 불편한 외국인에게 우리대학을 홍보하고 학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일문 홈페이지와 중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장학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학(獎學)센터 홈페이지도 개설돼, 장학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容易)해질 것으로 보인다.

### 금주의 특이인 - 제55회 현대문학상 수상한 박성원 교수 인터뷰

## 여성 정체성의 상처와 그 극복과정 소설 "얼룩" 통해 표상

현대문학상은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鼓吹)시키고, 한국문학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1955년 '현대문학상'을 제정했다. 현대문학상은 소설에서 이범선, 박경리, 이문구, 최인호, 조정래 등 14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당대 최고의 문학적 성과를 이룬 작품들을 선정해 작가의 창작열의를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전의 계승'이라는 현대문학사의 창간 이념 아래 제정된 문학상(文學賞)은 현재 국내 대표적인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권위 높은 문학상이다.

박성원(문창)교수는 올해로 55회째를 맞는 현대문학상의 소설 부문 수상자다. 권위 있는 문학상의 수상인 만큼, 박성원 교수의 수상 소식은 학내·외적으로 화제다. 현대문학상의 당선작인 '얼룩', 박성원(문창) 교수와의 인터뷰는 작품 이야기로 시작했다.

문학상의 당선작 '얼룩'은 여성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극복과

정을 그린 소설이다. 소설에서 얼룩은 여성이 사회적 제도로 인해 입는 상처는 물론 '남편'이라는 남성 자체도 얼룩으로 그려지고 있다. 박성원 교수는 "'얼룩'의 소재는 문창과 여학생들로부터 찾았다"며 "재능 있는 여학생들이 결혼 제도에 묶여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육아, 내조 등에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 사회제도에 문제(問題)를 느꼈다"고 말했다. 작가로서의 관찰력과 제자들에게 대한 스승의 염려하는 마음이 작품의 진면목(眞面目)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심사위원들은 박 교수의 이번 작품에 대해 "얼룩을 통해 내다본 삶의 풍경을 매우 섬세하고, 충격 부문 수상자다. 권위 있는 문학상의 수상인 만큼, 박성원 교수의 수상 소식은 학내·외적으로 화제다. 현대문학상의 당선작인 '얼룩', 박성원(문창) 교수와의 인터뷰는 작품 이야기로 시작했다.

25세에 소설 쓰기 시작, 26세에 등단 그리고 40세의 현대문학상 수상(受賞), 사실 박성원 교수의 화려한 이력은 이 뿐만이 아니



다. 2009년 동인문학상에는 '도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소설로 최종 후보에 올라 호평(好評)을 받기도 했다. 그는 소설가로서 실력과 재능을 겸비하고 있지만 단순히 실력과 재능 때문에 소설가를 꿈꾼 것은 아니다. 신춘문예에 당선되면 많은 상금을 준다는 말에 시작한 소설 쓰기, 소설가 박성원의 시작은 다른 소설가와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배고픈 직업'으로 인식되는 작가가 박성원 교수에게는 '배부른 직업'으로 다가왔다. 경제적 곤궁함에서 벗어나고자 시작한 소설 쓰기가 아이러니하게도 곤궁함의 시작이 돼 버렸던 셈이다. "이제는 삶에 대한 궁핍함, 그 근원적인 물음에 경제적 곤궁(困窮)함을 이긴 것 같다"며 웃어 보이는 박성원 교수.

앞으로도 오늘의 문학 청년들을 설레게 하는 작품 활동을 이어갈 것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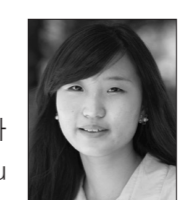
이지연 기자 lly88918@dgu.edu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지난 28일 참사랑봉사단이 주관하는 '연탄 배달 봉사'에 230여명의 학내 구성원들이 참가했다. 봉사자들은 중구 47개의 가정에 11,6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 동악로에서

이지연 기자  
lly88918@dgu.edu



### 하나되기

"조 과제가 힘들어요. 의사소통이 원활(圓滑)하지 않을뿐더러 과제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리라 하는 편이죠" 이는 중국인 유학생 1학년 A양의 하소연이다.

중국 유학생들은 교과 수업 외에도 축제, 동아리, 과 활동 등에 배제(排除)되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내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도원아(국문)양은 "개강총회 알림 문자를 중국학생들만 못 받아 개강총회가 언제인지도 몰랐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해도 학내 분위기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제 3회 중국 유학생 학생회가 출범해 유학생들의 고충(苦衷)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했다. 원전(무역학 석사과정) 부학생회장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장학, 교과수업, 하숙 등 유학생에게 필요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 학생과의 교류 또한 활

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 유학생회는 "중국학생과 한국학생이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줌으로써 친분을 쌓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유학생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학교 측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대학 중국 학생은 약 700여명, 전체 학생의 5%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물론 학교 전반적으로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이번 출범식은 중국인 학생들이 학내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목소리다.

원전 부학생회장은 출범식 후 계획에 대해 "한국어 교실을 개설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중국어 학습에 도움을 줘 소통의 장벽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외와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어 온 유학생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한 때다.

# 제 42대 총학생회, 박인우-황주상 조 당선(當選)

## 85.69% 찬성... 총여학생회는 나송희-윤지선 조 당선

단과대	총학 투표율 (단위:%)	찬성률 (단위:%)	반대율 (단위:%)	무효표	오차표
불교대학	72.73	84.18	14.12	3	0
문과대학	59.29	95.86	3.76	7	4
이과대학	54.52	85.88	13.59	5	3
법과대학	64.27	84.47	16.35	2	5
사회과학대학	39.64	86.75	4.81	8	3
경영대학	33.22	77.17	18.18	9	13
바이오시스템대학	50.86	90.25	8.05	4	0
공과대학	50.61	79.36	9.45	17	15
사범대학	66.02	85.48	8.60	33	11
예술대학	55.10	92.35	7.65	0	0

제 42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開票)결과, 박인우(윤리문화4)·황주상(인도철학4) 조가 투표자 6,151명 중 5,240표(투표율 85.69%)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當選)됐다. 또한 총여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나송희(한국화3)·윤지선(영문2) 조가 2,513표

(투표율 85.6%)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 개표(開票)는 지난 27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개표 결과(오차율 0.87%) 총학생회는 6151명(50.28%) 중 5240명

(투표율 85.69%)의 찬성표를 득표했다. 또 한 787명(12.87%)의 반대표와 88명(1.14%)의 무효표가 나왔다. 총학생회 선거 개표는 지난 26일 오후 12시에 실시되기로 했으나, 24일 투표소 설치가 늦어진 단과대에 한해 27일 오후 2시까지 투표가 연장돼 개표가 지연(遲延)된 바 있다.

총여학생회(오차율 3.22%)는 2822명(50.28%) 중 2513명(86.51%)의 찬성표를 얻었으며, 353명(12.15%)의 반대, 39명(1.34%)의 무효표가 나왔다.

한편 지난 24일부터 3일 간 진행된 단과대 선거 결과 모두 8개 단과대 학생회가 건설됐다.

△불교대 투표율=72.72% ▲이상연(불교2) 정 당선자 득표율

=94.32% △문과대 투표율 59.37% ▲노효선(철학3)-김갑현(사학3) 조 득표율=92.25%

△이과대 투표율=51.11% ▲박천순(반도체3)-최수호(물리2) 조 득표율=87.54% △법과대 투표율=67.3% ▲배훈욱(법2)-이원혁(법2) 조 득표율=33.60%

△경영대 투표율=33% ▲김희성(경영3)-백주연(경영3) 조 득표율 63% △공과대 투표율=66.74% ▲강신영(전자공3)-김동규(컴공2) 조 득표율=59.46%

△사범대 투표율=65.75% ▲이규량(국교3)-김무성(교육2) 조 득표율=88.8%

△예술대 투표율=51.84% ▲김은혜(불미3)-김선옥(영화2) 조 득표율=89.70%

김미로 기자 miro@dgu.edu

### “등록금 동결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제 42대 총학생회 당선자 인터뷰



박인우(윤리문화4)·황주상(인도철학4) 조가 지난 27일 총학생회 투표(投票) 결과 투표율 50.28%, 찬성률 85.69%로 42대 총학생회에 당선됐다. 그들이 그려나갈 2010 총학생회의 청사진에 대해 들어왔다.

-총학생회 선거에 당선된 소감은.

=박인우 : 책임감 있는 공약(公約) 실천으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0.28%의 낮은 투표율(投票率)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주상 :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총학의 필요성을 새기는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총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최우선으로 시행할 공약은.

=박인우 : 학생들에게 등록금인상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

다. 등록금 동결을 위해 학교 측과의 대화 창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의 포부(抱負)를 밝히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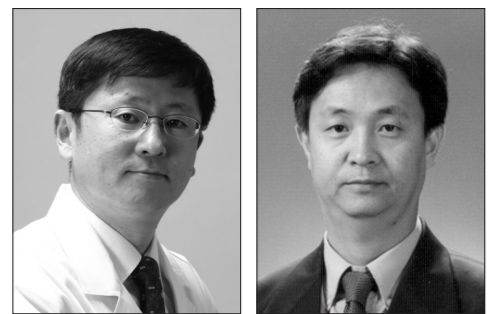
=박인우 : 우리의 모토는 ‘그대가 사랑할 수 있는 동국’이다. 그 모토에 맞게 학생들이 사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는 총학이 되겠다.

=황주상 :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학생들의 작은 고민도 함께 생각 할 수 있는 총학이 되겠다.

김미로 기자 miro@dgu.edu

## 구병수 교수, 국고 사업 수주로 6억원 지원

### 김성민 교수도 예비 선정으로 2천만원 지원... 최종 선정시 100억



▲ 구병수 교수 ▲ 김성민 교수

우리대학 구병수 일산한방병원장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2009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한약제제개발지원 프로그램’의 비임상시험 분야에서 ‘소합항원가감방으로부터 APP/ApoE KD Tg 치매동물병태모델을 활용한 한방치매 치료제 전임상 연구 및 IND 승인’ 연구가 선정(選定)돼 2년간 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支援)받는다.

구병수 교수의 연구는 동의보감에서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

되는 ‘소합항원’이란 치료제에 들어가는 백출, 목향, 침향 등 14가지 약재 중 독성이 있는 7가지를 빼고 천궁이란 약재를 첨가해 만든 소합항원가감방이 처방치매치료제로써 적합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치매 치료제로서 한방신약제제를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다.

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뇌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약물을 개발할 것”이라며 “환자의 치매와 같은 뇌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2009 하반기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의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센터’분야에서 김성민 교수(의생명공학)의 ‘Bio-IT 융합 인체 기능회복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센터 구축’ 연구가 예비 과제로 선정돼 4개

월간 2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김성민 교수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 과제에 지원한 분야는 의료기기 산업의 도약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 국가 R&D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연구하는 분야다. 김 교수는 의료기기 시제품 제작 및 신속한 유효성 검증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수립, 산학협동 과정 개발 등을 연구해 예비 과제에 선정됐다.

현재 ‘2009 하반기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에는 우리대학을 포함해 서울대, 연세대 등 5개 대학이 예비 선정됐으며, 최종 선정 되면 5년 동안 총 10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내년 3월에 발표(發表)된다.

김 교수는 “예비선정이 된 것의 의미가 있지만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 2009 희망의 인문학 졸업식서 1,206명 수료

서울시가 주관하는 ‘2009 희망의 인문학 과정’ 졸업식(卒業式)이 지난 26일 본관 중앙강당에서 개최돼 총 1,206명이 수료(修了)했다.

2009 희망의 인문학과정 졸업식은 최순열 학사부총장, 박윤희 문과대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통해 수료한 학생은 참가자 1,643명 중 모두 1,206명이다.

‘2009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서울시 내 노숙인, 저소득층에게 배움을 통한 자활의지를 불어넣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문과대학은 총 12만, 382명의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본 교육 과정을 위해 모두 60여명의 교수진을 파견(派遣)했다. 강의는 6개월 과정으로 3월,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설됐으며 철학, 문학, 역사, 글쓰기, 예술 등의 기본교과와 특강, 문화공연과 미술전시회 관람, 역사유적지 탐방 등의 체험학습으로 구성됐다.

## 학교법인 영석학원, 우리대학에 기부 동문 안채란 이사장 결정... 우리대학과 합병

학교법인 영석학원이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에서 우리대학과 기부 합병 협정 조인식을 갖고 법인의 재산을 기부(寄附)하기로 했다.

조인식에는 안채란 영석학원 이사장과 동국대 이사장인 정령 스톱 등 두 법인 관계자 20여명이 참석(參席)했다.

법인 측에 따르면 영석학원의 재산은 의정부 용현동 4만1천900여㎡에 세워진 영석고등학교와 임대용 건물 등을 합쳐 시가 1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대학은 합병 이후에도 영석고등학교의 교명은 유지(維持)할 방침이다. 안 이사장은 우리대학 국문과와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졸업, 부동산 사업을 통해 쌓은 재력으로 1970년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아버지의 야호를 딴 이름의 학교법인을 세웠다. 또한 우리대학 총동창회 부회장과 대학 재단 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는 등 인연이 깊다. 안 이사장은 이날 조인식에서 “사심 없이 (인재를 양성해) 애국하는 동국대라면 영석고를 더욱 발전시킬 것 같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석학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運營) 중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다음 달 초 정식 이사로 교체(交替)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합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령 스톱 이사 체제는 교과부의 사학분쟁조정위의 승인(承認)이 필요하다.

정용재 기자 wonder@dgu.edu

## 힌두스탄 대학과 학술교류협약 체결

우리대학이 오는 11일 인도의 힌두스탄 대학과 학생 및 교수 교류(交流), 공동연구 등의 연구 교류를 위한 학술교류협약을 체결(締結)한다.

협약식은 오는 11일, 본관 5층 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오영교 총장과, 힌두스탄 대학교의 Anand Jacob Verghese 총장이 참석한다.

## 동명랩테크 김옥련 대표, 기자재 기부 2천만 원 상당... 화학과 공용 실습실에 비치

동명랩테크의 김옥련 대표가 지난 25일 우리대학 화학과에 2천 만 원 상당의 실험 기자재를 기부(寄附)했다.

이과대학 학사운영실의 박래호 과장은 이번 기부와 관련해 “화학과 공영대 교수와 동명랩테크 김옥련 대표의 개인적인 친분이 기부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기부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기부 받은 실험 기자재들은

화학과 공용 실습실에 비치(備置)된 상태다.

한편 지난 25일 이과대학 학장실에서 열린 감사패 수여식에서 대리 수상자로 참석한 동명랩테크의 임근우 부사장은 “공영대 교수님께서 한국화학연구원 의 신약기반기술연구센터장으로 계시는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비록 작은 보탬이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영대, 중소기업청과 협약 체결 MBA 기업가정신 전공 발전 위해 상호 협력키로

우리대학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지난 2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MBA’ 과정의 발전을 위한 협약(協約)을 체결했다.

‘기업가정신’은 지난해 3월 경영전문대학원(MBA)에서 리더십 개발과 창조적 기업인 양성을 위해 도입한 전공 과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대학과 중기청은 ‘기업가정신’ 전공 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協力)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가정신’ 전공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중기청 창업관련 사업 참여 시 창업관련 비용 및 아이디어 사업화·상업화 자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우리대학은 ‘기업가정신 전공’ 신입생 모집 시 중기청이 추천한 경진대회 수상자, 가업 및 경영승계자, 청소년 비즈쿨 졸업자를 우대하고, 재학생의 각종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 동대학술상·동대문학상 시상식

### 지난 3일 본관 교무회의실서 총 5명 수상



본지(本紙)가 주관하는 제 47회 동대학술상과 제 24회 동대문학상의 시상식이 지난 3일 본관 학사부총장실에서 열렸다.

학술상에서는 인문과학부문 장원(狀元)은 한유경(국교4), 자연과학부문 장원은 이송희(산림자원4) 양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학상에서는 시 부문 장원 오상미(문창3)이, 소설 부문 장원 라유경(문창4), 희곡·시나리오 부문 장원 임나진(국문4)양이 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가작(佳作)으로는 학술상의 인문과학분야에서 안효선(국교4)양이,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박민준(정의3)군이 선정됐다. 문학상에서는 시 부문 권민자(문창4) 양, 소설 부문은 오민아(문창4), 희곡·시나리오 부문은 전진우(문창2)군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 사법시험 최종 10명 합격(合格) 행정고시 3명, 변리사시험은 총 3명 합격

제 51회 사법시험에서 우리대학 출신 합격자가 총 10명으로 집계(集計)됐다.

지난 24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997명의 최종합격자 중 우리대학은 10명의 합격자를 배출(輩出)해 전국 대학 중 16위를 기록했다.

이번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한준경(법01졸) △강윤영(법03졸) △손미희(법05졸) △고준만(법05졸) △성태규(법09졸) △나소라(법4) △정선화(법4) △윤대희(행정98졸) △이성철(행정04졸) △임지석(행정07졸)이다.

또한 행정고등고시에서는 3명의 합격자가, 변리사시험에서는 3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행정고등고시의 최종 합격자는 임형호(식공미졸), 전인재(경행02졸), 김태훈(경행07졸)이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환(법학94졸), 이광진(기계4), 홍석영(화공4)이다.

## 지난 1일 중국인 유학생회 출범

### 서분홍 학생회장 “유학생 편의 도모할 것”

우리대학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약 8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자 지난 1일 제 3회 중국인 유학생회는 서분홍(북한2), 원전(무역학 석사과정)씨가 각각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을 맡았다.

신청을 포함한 학사전반에 대한 멘토링 활동에 들어간다. 중국인 유학생회 서분홍 학생회장은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적응하기 어려워 한다”며 “중국인 유학생회가 학교와 학생들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발족식은 문화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중국대사관 관계자 및 유학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홍콩대 경쟁력의 근원은 불교교양 교육이다”

불교철학, 불교사, 불교미술 등 12명 교수와 110명 학생 소속



정인선님  
홍콩대학교 불교학 연구소 소장

아시아 대학 1위, 세계 대학 순위 24위, 그들에게는 다른 아시아 대학에서 살펴볼 수 없는 불교학이 있었다. 기초 교양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불교학 연구소는 홍콩대학의 가장 전통 있는 분과이자 May Hall에 위치하고 있었다. 불교학 연구소장인 정인선님은 “홍콩대학의 뿌리인 연구부의 위에는 불교학이라는 튼튼한 나무의 뿌리가 있었다”고 학문에 있어서 불교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인선님은 “현대 학문은 각각의 이질적이고 전문적인 학문분야가 기층처럼 엄밀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며 “이들의 연결 불교가 나와서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불교학”이라고 설명했다.

홍콩대학교의 불교학연구소는 2000년도에 다양한 학제체계

와 불교를 접목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조교수와 교관교수를 포함해 12명의 교수들과 약 110명의 학생들이 있다. 불교학연구소에서는 교수 한 명당 9~10명의 연구생들이 한 팀을 이뤄 10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불교학 연구소는 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와 함께 기초교양강좌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행정상으로는 연구소이지만, 단과대학에 비견가는 커리큘럼과 연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교 교과에서부터 불교 철학, 중국불교의 역사, 불교 미술 등 총 16개의 강의로 이뤄지는 커리큘럼은 홍콩대학이 불교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홍콩대의 불교학연구소는 개인의 실의 질을 높이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인선님은 “홍콩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처럼 매우 열심히 일하고 바쁜 일상을 보낸다. 우리는 한 개인이 있어서 돌봄적인 욕망의 충족과 정신적인 행복의 균형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불교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불교학이 그러한 홍콩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인선님은 우리대학 불교학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면서 “동국대와 앞으로 많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홍콩대학은 개교한지 100년이 넘었다. 영국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유혈식 대학교육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은 아시아 최고의 연구역량을 자랑하는 대학이다. 무엇이 그들을 아시아 최고의 연구중심으로 삼 수 있게 했으며 그곳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홍콩대학을 직접 찾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편집자

### 글쓰는 순서

1. 일본 리츠메이칸 APU
2.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3. 미국 칼럼비아대학교
4.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5. 미국 뉴욕대학교
6. 일본 고토대학교
7. 중국 베이징대학
8. 중국 홍콩대학교
9. 중국 칭화대학교
10. 프랑스 파리 4대학교
11. 일본 고토 불교대학

홍콩 = 책읽기 동국포스트 기자

조선 일보와 영국의 평가기관 QS (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 실시한 2009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홍콩대학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된 ‘2009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이다. 유럽과 미국의 명성 있는 대학을 제치고 2위를 차지한 홍콩대의 무엇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홍콩대학의 높은 순위는 수준 높은 교수들과 탁월한 연구생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대학당국의 끊임없는 지원과 후원이었다.

어느 일간지 인터넷에서 홍콩대학 탐사취사가 홍장은 “홍콩대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월성 추구”라고 말한 바 있다. 즉 그들의 경쟁력은 탁월한 교수와 탁월한 학생이다. 홍콩대학의 학생들 모두가 인정하는 교수들의 질 높은 교육수준, 세계에서 인정하는 연구 성과, 홍콩대학 경쟁력은 우수한 교수진에서 나온다는 말이 오래이다.

### 최고의 교수진을 뽑아들이는 홍콩대학

홍콩대학은 좋은 교수를 초빙하는데 열심이다. 그들은 일부 교수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우수한 교수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 참가하기 해 온갖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그들은 기존 대학 연봉의 3배를 제시하는 것은 보통이고,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용 호텔도 고대하며, 자녀교육비 보장 등의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홍콩대학 교수 50%이상이 세계명문대 출신이며 교수의 절반은 50개 국가에서 온 국제적 영향력을 갖는 외국인이다.

그러나 홍콩대학에 초빙된 순간 교수들은 ‘행복 해, 경쟁 시작’을 외쳐야한다. 홍콩대학들은 어렵게 사자를 석학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교수 평가가 실시해 성과를 내지 않고는 해빙 수 없게 된다.

한 학기에 한 번씩 모든 강의의 마지막 수업 30분 동안은 교수진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설문조사를 하듯 학생들에게 질문을 나누주고 교수진의 강의의 문제 및 강의방법, 언어, 속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점 등을 쓰게 한다. 이렇게 매 학기 진행되는 강의평가 결과를 점수화 시키고, 그 밖의 교수한 연구 성과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네덜란드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홍콩대학교 주커 학부사과정에 있는 서보경 씨는 “한국과 유럽에서 공부를 해 보았지만 항상 자료를 찾는 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어렵지 않았다. 이제 홍콩대학교 교수들은 동료 교수들에게도 주커편을 통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은 논문도 통하게 되는 교수들은 홍콩대학에서 정년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정년을 보장 받은 후에도 연구실적이 좋지 않으면 연봉을 삭감한다. 이렇게 혹독한 교수평가 아래 이집대 교수

## 동국미디어센터 특별기획 -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8> 중국 - 홍콩대학교

# “연구부문 아시아 1위 지키는 치열한 연구풍토”



스승들은 훌륭한 스승인지를 연구인들에 의해 세워진 영국식 교육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튜토리얼을 중시하는 교내연구 연구원들은 우대하는 학생은 유망의 대학교육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사진은 계교 당시 지어진 홍콩대학 본관으로 홍콩대학의 단골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 작은 캠퍼스 활용하기 위해 고층 건물 준비... 시내 곳곳에 캠퍼스 분산시켜 효율성 극대화 시켜

### 수업의 80%는 학생들이 끌여가고 교수는 적절한 지도로 교육효과 높여... 튜토리얼은 기본

의 96%가 ISI(미국 과학 정보 연구소)의 논문 인용 순위에서 세계 1%에 들기까지 한다. 하지만, 평가가 혹독한 만큼 교수들에 대한 연구 지원도 대단했다.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홍콩대학 교수는 평균 한 학기에 23과목 정도의 강의를 맡는다. 그들은 1주일에 평균 강의시간 6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와 견주어 봤을 때 매우 적은 강의시간이다. 또 홍콩 시내보다 외국을 더 많이 돌아다니는 정도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도 한다.

### 조교수에 매달 연구지원 200만원 지급

홍콩대학은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원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풀타임 연구생들에게 한 달에 홍콩달러로 13,000달러(한화 약 2000만원)를 지급한다. 현재 홍콩대학 도시계획 박사과정에는 곽광모 박사에게 2000만원의 연구 지원금과 함께 생활비를 해지 알리기도 홍콩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장학금인 ‘홍콩대학 연구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평가결과가 좋은 교수들에게 한해에 5년에 한 번씩 조교수급의 평가를 받게 하는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가 좋은 교수들에게 한해에 5년에 한 번씩 조교수급의 평가를 받게 하는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결과가 좋은 교수들에게 한해에 5년에 한 번씩 조교수급의 평가를 받게 하는 평가가 이뤄진다.

서보경씨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을 찾은 대학생들에게 홍콩대학을 추천했다. 가까운 만 아니라, 학술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일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연구원들을 우대하는 풍토가 만족스럽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 경우에는 자료를 180일 동안 빌려볼 수 있고, 학부생의 경우 대출기간은 30일이라고 한다. 1400 동안 대출 할 수 있는 우리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중앙도서관의 1층에 들어서면 디지털화되어있는 검색 시스템이 눈에 띈다. 1층의 시청각 자료에서부터 6층의 학술까지 다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 단행본 852.7만권, 11,500권의 정기간행물, 4,500권의 시청각 자료, 2만 권의 CD, DVD, MP3, MP4, MP5, MP6, MP7, MP8, MP9, MP10, MP11, MP12, MP13, MP14, MP15, MP16, MP17, MP18, MP19, MP20, MP21, MP22, MP23, MP24, MP25, MP26, MP27, MP28, MP29, MP30, MP31, MP32, MP33, MP34, MP35, MP36, MP37, MP38, MP39, MP40, MP41, MP42, MP43, MP44, MP45, MP46, MP47, MP48, MP49, MP50, MP51, MP52, MP53, MP54, MP55, MP56, MP57, MP58, MP59, MP60, MP61, MP62, MP63, MP64, MP65, MP66, MP67, MP68, MP69, MP70, MP71, MP72, MP73, MP74, MP75, MP76, MP77, MP78, MP79, MP80, MP81, MP82, MP83, MP84, MP85, MP86, MP87, MP88, MP89, MP90, MP91, MP92, MP93, MP94, MP95, MP96, MP97, MP98, MP99, MP100, MP101, MP102, MP103, MP104, MP105, MP106, MP107, MP108, MP109, MP110, MP111, MP112, MP113, MP114, MP115, MP116, MP117, MP118, MP119, MP120, MP121, MP122, MP123, MP124, MP125, MP126, MP127, MP128, MP129, MP130, MP131, MP132, MP133, MP134, MP135, MP136, MP137, MP138, MP139, MP140, MP141, MP142, MP143, MP144, MP145, MP146, MP147, MP148, MP149, MP150, MP151, MP152, MP153, MP154, MP155, MP156, MP157, MP158, MP159, MP160, MP161, MP162, MP163, MP164, MP165, MP166, MP167, MP168, MP169, MP170, MP171, MP172, MP173, MP174, MP175, MP176, MP177, MP178, MP179, MP180, MP181, MP182, MP183, MP184, MP185, MP186, MP187, MP188, MP189, MP190, MP191, MP192, MP193, MP194, MP195, MP196, MP197, MP198, MP199, MP200, MP201, MP202, MP203, MP204, MP205, MP206, MP207, MP208, MP209, MP210, MP211, MP212, MP213, MP214, MP215, MP216, MP217, MP218, MP219, MP220, MP221, MP222, MP223, MP224, MP225, MP226, MP227, MP228, MP229, MP230, MP231, MP232, MP233, MP234, MP235, MP236, MP237, MP238, MP239, MP240, MP241, MP242, MP243, MP244, MP245, MP246, MP247, MP248, MP249, MP250, MP251, MP252, MP253, MP254, MP255, MP256, MP257, MP258, MP259, MP260, MP261, MP262, MP263, MP264, MP265, MP266, MP267, MP268, MP269, MP270, MP271, MP272, MP273, MP274, MP275, MP276, MP277, MP278, MP279, MP280, MP281, MP282, MP283, MP284, MP285, MP286, MP287, MP288, MP289, MP290, MP291, MP292, MP293, MP294, MP295, MP296, MP297, MP298, MP299, MP300, MP301, MP302, MP303, MP304, MP305, MP306, MP307, MP308, MP309, MP310, MP311, MP312, MP313, MP314, MP315, MP316, MP317, MP318, MP319, MP320, MP321, MP322, MP323, MP324, MP325, MP326, MP327, MP328, MP329, MP330, MP331, MP332, MP333, MP334, MP335, MP336, MP337, MP338, MP339, MP340, MP341, MP342, MP343, MP344, MP345, MP346, MP347, MP348, MP349, MP350, MP351, MP352, MP353, MP354, MP355, MP356, MP357, MP358, MP359, MP360, MP361, MP362, MP363, MP364, MP365, MP366, MP367, MP368, MP369, MP370, MP371, MP372, MP373, MP374, MP375, MP376, MP377, MP378, MP379, MP380, MP381, MP382, MP383, MP384, MP385, MP386, MP387, MP388, MP389, MP390, MP391, MP392, MP393, MP394, MP395, MP396, MP397, MP398, MP399, MP400, MP401, MP402, MP403, MP404, MP405, MP406, MP407, MP408, MP409, MP410, MP411, MP412, MP413, MP414, MP415, MP416, MP417, MP418, MP419, MP420, MP421, MP422, MP423, MP424, MP425, MP426, MP427, MP428, MP429, MP430, MP431, MP432, MP433, MP434, MP435, MP436, MP437, MP438, MP439, MP440, MP441, MP442, MP443, MP444, MP445, MP446, MP447, MP448, MP449, MP450, MP451, MP452, MP453, MP454, MP455, MP456, MP457, MP458, MP459, MP460, MP461, MP462, MP463, MP464, MP465, MP466, MP467, MP468, MP469, MP470, MP471, MP472, MP473, MP474, MP475, MP476, MP477, MP478, MP479, MP480, MP481, MP482, MP483, MP484, MP485, MP486, MP487, MP488, MP489, MP490, MP491, MP492, MP493, MP494, MP495, MP496, MP497, MP498, MP499, MP500, MP501, MP502, MP503, MP504, MP505, MP506, MP507, MP508, MP509, MP510, MP511, MP512, MP513, MP514, MP515, MP516, MP517, MP518, MP519, MP520, MP521, MP522, MP523, MP524, MP525, MP526, MP527, MP528, MP529, MP530, MP531, MP532, MP533, MP534, MP535, MP536, MP537, MP538, MP539, MP540, MP541, MP542, MP543, MP544, MP545, MP546, MP547, MP548, MP549, MP550, MP551, MP552, MP553, MP554, MP555, MP556, MP557, MP558, MP559, MP560, MP561, MP562, MP563, MP564, MP565, MP566, MP567, MP568, MP569, MP570, MP571, MP572, MP573, MP574, MP575, MP576, MP577, MP578, MP579, MP580, MP581, MP582, MP583, MP584, MP585, MP586, MP587, MP588, MP589, MP590, MP591, MP592, MP593, MP594, MP595, MP596, MP597, MP598, MP599, MP600, MP601, MP602, MP603, MP604, MP605, MP606, MP607, MP608, MP609, MP610, MP611, MP612, MP613, MP614, MP615, MP616, MP617, MP618, MP619, MP620, MP621, MP622, MP623, MP624, MP625, MP626, MP627, MP628, MP629, MP630, MP631, MP632, MP633, MP634, MP635, MP636, MP637, MP638, MP639, MP640, MP641, MP642, MP643, MP644, MP645, MP646, MP647, MP648, MP649, MP650, MP651, MP652, MP653, MP654, MP655, MP656, MP657, MP658, MP659, MP660, MP661, MP662, MP663, MP664, MP665, MP666, MP667, MP668, MP669, MP670, MP671, MP672, MP673, MP674, MP675, MP676, MP677, MP678, MP679, MP680, MP681, MP682, MP683, MP684, MP685, MP686, MP687, MP688, MP689, MP690, MP691, MP692, MP693, MP694, MP695, MP696, MP697, MP698, MP699, MP700, MP701, MP702, MP703, MP704, MP705, MP706, MP707, MP708, MP709, MP710, MP711, MP712, MP713, MP714, MP715, MP716, MP717, MP718, MP719, MP720, MP721, MP722, MP723, MP724, MP725, MP726, MP727, MP728, MP729, MP730, MP731, MP732, MP733, MP734, MP735, MP736, MP737, MP738, MP739, MP740, MP741, MP742, MP743, MP744, MP745, MP746, MP747, MP748, MP749, MP750, MP751, MP752, MP753, MP754, MP755, MP756, MP757, MP758, MP759, MP760, MP761, MP762, MP763, MP764, MP765, MP766, MP767, MP768, MP769, MP770, MP771, MP772, MP773, MP774, MP775, MP776, MP777, MP778, MP779, MP780, MP781, MP782, MP783, MP784, MP785, MP786, MP787, MP788, MP789, MP790, MP791, MP792, MP793, MP794, MP795, MP796, MP797, MP798, MP799, MP800, MP801, MP802, MP803, MP804, MP805, MP806, MP807, MP808, MP809, MP810, MP811, MP812, MP813, MP814, MP815, MP816, MP817, MP818, MP819, MP820, MP821, MP822, MP823, MP824, MP825, MP826, MP827, MP828, MP829, MP830, MP831, MP832, MP833, MP834, MP835, MP836, MP837, MP838, MP839, MP840, MP841, MP842, MP843, MP844, MP845, MP846, MP847, MP848, MP849, MP850, MP851, MP852, MP853, MP854, MP855, MP856, MP857, MP858, MP859, MP860, MP861, MP862, MP863, MP864, MP865, MP866, MP867, MP868, MP869, MP870, MP871, MP872, MP873, MP874, MP875, MP876, MP877, MP878, MP879, MP880, MP881, MP882, MP883, MP884, MP885, MP886, MP887, MP888, MP889, MP890, MP891, MP892, MP893, MP894, MP895, MP896, MP897, MP898, MP899, MP900, MP901, MP902, MP903, MP904, MP905, MP906, MP907, MP908, MP909, MP910, MP911, MP912, MP913, MP914, MP915, MP916, MP917, MP918, MP919, MP920, MP921, MP922, MP923, MP924, MP925, MP926, MP927, MP928, MP929, MP930, MP931, MP932, MP933, MP934, MP935, MP936, MP937, MP938, MP939, MP940, MP941, MP942, MP943, MP944, MP945, MP946, MP947, MP948, MP949, MP950, MP951, MP952, MP953, MP954, MP955, MP956, MP957, MP958, MP959, MP960, MP961, MP962, MP963, MP964, MP965, MP966, MP967, MP968, MP969, MP970, MP971, MP972, MP973, MP974, MP975, MP976, MP977, MP978, MP979, MP980, MP981, MP982, MP983, MP984, MP985, MP986, MP987, MP988, MP989, MP990, MP991, MP992, MP993, MP994, MP995, MP996, MP997, MP998, MP999, MP1000, MP1001, MP1002, MP1003, MP1004, MP1005, MP1006, MP1007, MP1008, MP1009, MP1010, MP1011, MP1012, MP1013, MP1014, MP1015, MP1016, MP1017, MP1018, MP1019, MP1020, MP1021, MP1022, MP1023, MP1024, MP1025, MP1026, MP1027, MP1028, MP1029, MP1030, MP1031, MP1032, MP1033, MP1034, MP1035, MP1036, MP1037, MP1038, MP1039, MP1040, MP1041, MP1042, MP1043, MP1044, MP1045, MP1046, MP1047, MP1048, MP1049, MP1050, MP1051, MP1052, MP1053, MP1054, MP1055, MP1056, MP1057, MP1058, MP1059, MP1060, MP1061, MP1062, MP1063, MP1064, MP1065, MP1066, MP1067, MP1068, MP1069, MP1070, MP1071, MP1072, MP1073, MP1074, MP1075, MP1076, MP1077, MP1078, MP1079, MP1080, MP1081, MP1082, MP1083, MP1084, MP1085, MP1086, MP1087, MP1088, MP1089, MP1090, MP1091, MP1092, MP1093, MP1094, MP1095, MP1096, MP1097, MP1098, MP1099, MP1100, MP1101, MP1102, MP1103, MP1104, MP1105, MP1106, MP1107, MP1108, MP1109, MP1110, MP1111, MP1112, MP1113, MP1114, MP1115, MP1116, MP1117, MP1118, MP1119, MP1120, MP1121, MP1122, MP1123, MP1124, MP1125, MP1126, MP1127, MP1128, MP1129, MP1130, MP1131, MP1132, MP1133, MP1134, MP1135, MP1136, MP1137, MP1138, MP1139, MP1140, MP1141, MP1142, MP1143, MP1144, MP1145, MP1146, MP1147, MP1148, MP1149, MP1150, MP1151, MP1152, MP1153, MP1154, MP1155, MP1156, MP1157, MP1158, MP1159, MP1160, MP1161, MP1162, MP1163, MP1164, MP1165, MP1166, MP1167, MP1168, MP1169, MP1170, MP1171, MP1172, MP1173, MP1174, MP1175, MP1176, MP1177, MP1178, MP1179, MP1180, MP1181, MP1182, MP1183, MP1184, MP1185, MP1186, MP1187, MP1188, MP1189, MP1190, MP1191, MP1192, MP1193, MP1194, MP1195, MP1196, MP1197, MP1198, MP1199, MP1200, MP1201, MP1202, MP1203, MP1204, MP1205, MP1206, MP1207, MP1208, MP1209, MP1210, MP1211, MP1212, MP1213, MP1214, MP1215, MP1216, MP1217, MP1218, MP1219, MP1220, MP1221, MP1222, MP1223, MP1224, MP1225, MP1226, MP1227, MP1228, MP1229, MP1230, MP1231, MP1232, MP1233, MP1234, MP1235, MP1236, MP1237, MP1238, MP1239, MP1240, MP1241, MP1242, MP1243, MP1244, MP1245, MP1246, MP1247, MP1248, MP1249, MP1250, MP1251, MP1252, MP1253, MP1254, MP1255, MP1256, MP1257, MP1258, MP1259, MP1260, MP1261, MP1262, MP1263, MP1264, MP1265, MP1266, MP1267, MP1268, MP1269, MP1270, MP1271, MP1272, MP1273, MP1274, MP1275, MP1276, MP1277, MP1278, MP1279, MP1280, MP1281, MP1282, MP1283, MP1284, MP1285, MP1286, MP1287, MP1288, MP1289, MP1290, MP1291, MP1292, MP1293, MP1294, MP1295, MP1296, MP1297, MP1298, MP1299, MP1300, MP1301, MP1302, MP1303, MP1304, MP1305, MP1306, MP1307, MP1308, MP1309, MP1310, MP1311, MP1312, MP1313, MP1314, MP1315, MP1316, MP1317, MP1318, MP1319, MP1320, MP1321, MP1322, MP1323, MP1324, MP1325, MP1326, MP1327, MP1328, MP1329, MP1330, MP1331, MP1332, MP1333, MP1334, MP1335, MP1336, MP1337, MP1338, MP1339, MP1340, MP1341, MP1342, MP1343, MP1344, MP1345, MP1346, MP1347, MP1348, MP1349, MP1350, MP1351, MP1352, MP1353, MP1354, MP1355, MP1356, MP1357, MP1358, MP1359, MP1360, MP1361, MP1362, MP1363, MP1364, MP1365, MP1366, MP1367, MP1368, MP1369, MP1370, MP1371, MP1372, MP1373, MP1374, MP1375, MP1376, MP1377, MP1378, MP1379, MP1380, MP1381, MP1382, MP1383, MP1384, MP1385, MP1386, MP1387, MP1388, MP1389, MP1390, MP1391, MP1392, MP1393, MP1394, MP1395, MP1396, MP1397, MP1398, MP1399, MP1400, MP1401, MP1402, MP1403, MP1404, MP1405, MP1406, MP1407, MP1408, MP1409, MP1410, MP1411, MP1412, MP1413, MP1414, MP1415, MP1416, MP1417, MP1418, MP1419, MP1420, MP1421, MP1422, MP1423, MP1424, MP1425, MP1426, MP1427, MP1428, MP1429, MP1430, MP1431, MP1432, MP1433, MP1434, MP1435, MP1436, MP1437, MP1438, MP1439, MP1440, MP1441, MP1442, MP1443, MP1444, MP1445, MP1446, MP1447, MP1448, MP1449, MP1450, MP1451, MP1452, MP1453, MP1454, MP1455, MP1456, MP1457, MP1458, MP1459, MP1460, MP1461, MP1462, MP1463, MP1464, MP1465, MP1466, MP1467, MP1468, MP1469, MP1470, MP1471, MP1472, MP1473, MP1474, MP1475, MP1476, MP1477, MP1478, MP1479, MP1480, MP1481, MP1482, MP1483, MP1484, MP1485, MP1486, MP1487, MP1488, MP1489, MP1490, MP1491, MP1492, MP1493, MP1494, MP1495, MP1496, MP1497, MP1498, MP1499, MP1500, MP1501, MP1502, MP1503, MP1504, MP1505, MP1506, MP1507, MP1508, MP1509, MP1510, MP1511, MP1512, MP1513, MP1514, MP1515, MP1516, MP1517, MP1518, MP1519, MP1520, MP1521, MP1522, MP1523, MP1524, MP1525, MP1526, MP1527, MP1528, MP1529, MP1530, MP1531, MP1532, MP1533, MP1534, MP1535, MP1536, MP1537, MP1538, MP1539, MP1540, MP1541, MP1542, MP1543, MP1544, MP1545, MP1546, MP1547, MP1548, MP1549, MP1550, MP1551, MP1552, MP1553, MP1554, MP1555, MP1556, MP1557, MP1558, MP1559, MP1560, MP1561, MP1562, MP1563, MP1564, MP1565, MP1566, MP1567, MP1568, MP1569, MP1570, MP1571, MP1572, MP1573, MP1574, MP1575, MP1576, MP1577, MP1578, MP1579, MP1580, MP1581, MP1582, MP1583, MP1584, MP1585, MP1586, MP1587, MP1588, MP1589, MP1590, MP1591, MP1592, MP1593, MP1594, MP1595, MP1596, MP1597, MP1598, MP1599, MP1600, MP1601, MP1602, MP1603, MP1604, MP1605, MP1606, MP1607, MP1608, MP1609, MP1610, MP1611, MP1612, MP1613, MP1614, MP1615, MP1616, MP1617, MP1618, MP1619, MP1620, MP1621, MP1622, MP1623, MP1624, MP1625, MP1626, MP1627, MP1628, MP1629, MP1630, MP1631, MP1632, MP1633, MP1634, MP1635, MP1636, MP1637, MP1638, MP1639, MP1640, MP1641, MP1642, MP1643, MP1644, MP1645, MP1646, MP1647, MP1648, MP1649, MP1650, MP1651, MP1652, MP1653, MP1654, MP1655, MP1656, MP1657, MP

# “원효대사, 문화콘텐츠로 화려하게 부활”

##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원효콘텐츠 개발과 활용’ 세미나 개최



▲ 원효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사학과 김상현 교수.

우리대학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지난달 25일 덕암 세미나실에서 ‘원효 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활용’이란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우리대학 김상현(사학과), 오대혁(국어국문학과) 교수 및 한보광(선학과)교수, 이재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호서대학 유동환(문화기획학) 교수가 논문을 발표(發表)했다.

제 1발표에서는 ‘원효 화쟁사상의 현대적 의미’란 주제로 김상현 교수가 발표했다. 김상현 교수는 “원효의 사상은 민중과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보편성(普遍性) 및 세계성

이 있다”며 “그 사상은 신라에만 국한(局限)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인 동아시아 전체에 통하는 보편사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성과 참신성 또한 담고 있어 그의 사상(思想)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意味)로 다가선다”고 말했다. 또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하여 “원효의 화쟁사상이란 논리(論理)와 방법 두 가지를 융합하지만 하나로 통일화 하지 않는 것”이라며 “원효의 논리는 양자택일(兩者擇一)이나 변증법적인 통일(統一)의 논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이어 ‘원효설화와 스토

리텔링’이란 주제로 오대혁 교수가 발표했다. 오 교수는 “불교에서는 대가설법이라 하여 대중의 근기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며 “이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탑신의 팔면에 부처님의 일대기(一代記)를 팔상도로 새겨 넣어 사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찰의 기원(基源)이나 고승의 일대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서 해아릴 수 없는 이야기들을 생산해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불교의 ‘이야기하기’는 최근 사회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와 매우 흡사(相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원효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가 공존했던 근대 이전 시기에는 구비설화, 문헌설화 등의 형태로 나타났고, 근대 이후에는 소설, 무용극 등의 다채로운 매체들을 통해 이야기됐다”며 “원효 스토리텔링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달 매체의 변화에 부응해나가면서도 원효가 말하고자 했던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주장했다.

제 3발표에서는 한보광 교수와 이재수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이 ‘원효대사 다장르 스토리뱅크의 기획과 제작’이란 주제로 발표

이재수 연구원은 ‘원효 스토리뱅크 구축 사업’의 의의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물을 발굴하여 글로벌 컬러콘텐츠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구의 과제로 원효에 주목(注目)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4발표에서는 ‘인터랙티브 맵으로 만나는 원효로드’란 주제로 이재수 연구원 및 이선수(주)여금 마케팅기획실 차장이 발표했다.

이선수 차장은 발표에서 “인터랙티브 맵은 주제를 정해 사용자의 의도와 부합하는 복합적인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지도”라며 “원효로드 또한 원효의 발길이 닿은 곳의 지리정보를 표시하고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해당 정보(情報)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획(企劃)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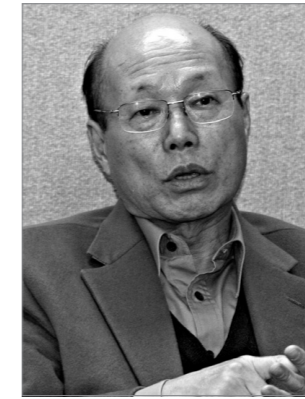
마지막 발표는 ‘원효 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 연구’란 주제로 호서대학 유동환 교수가 발표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2009년 문화원형 창조소재 개발 사업’에 (주)여금과 함께 선정돼 현재 원효대사를 소재로 다장르 스토리뱅크를 구축 및 인터랙티브 맵을 개발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gu.edu

IEEE 학회 석학회원으로 선임된 이진구 교수

# “국내외의 인정 기쁘고 감사”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밀리미터와 연구만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밀리미터와 연구의 선구자(先驅者)로 불리는 우리대학 전자공학과 이진구 교수를 만났다.

이진구 교수는 갈륨비소화합물반도체, 마이크로파 및 밀리미터파 집적회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미국 전기·전자공학회(이하 IEEE)의 석학회원(Fellow)으로 선임(選任)됐다. IEEE는 전기·전자·컴퓨터·정보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로 매년 IEEE 학회 회원 중 그 해의 연구 성과 및 사회발전에 공헌(貢獻)한 회원 중 극소수의 회원들을 선별하여 석학회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진구 교수는 IEEE 석학회원에 선임된 것에 대해 “IEEE에서 지금까지 노력을 인정해 준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이 교수는 “내년 1월부터 IEEE 석학회원에 주어지는 다양한 연구

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석학회원으로서 진행하게 될 다양한 연구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이진구 교수는 국내에서도 연구성과를 인정받는 경험을 맞았다. 이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우리대학 밀리미터파 및 신기술 연구

센터(이하 MINT)에서 개발한 ‘반사판을 구비한 밀리미터파 영상화 시스템’이 ‘2009 대한민국특대대전’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 이진구 교수는 자신의 특화에 대해 “지구에 있는 모든 만

물은 그들 고유의 밀리미터파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명한 반사판을 이용하면 각각의 물체에서 발산되는 밀리미터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기술을 이용하면 공황에서 무기 검색 등에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T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MIMIC(밀리미터파 단일 집적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진구 교수는 “밀리미터파 연구를 통해 국내외에서 이처럼 성과를 인정받고 있지만 연구자금이 부족”해 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 교수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유능한 엔지니어를 고용(雇用)해야하지만 현재의 연구비로는 연두를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답답해 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우리대학이 세계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분야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밀리미터파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낸 이진구 교수의 마지막 목표는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첨단 의료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밀리미터파를 이용해 암 세포 등 질환을 검사하는 기계를 만들어 사람들이 편하게 병을 진단받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 그의 포부(抱負)다. 밀리미터파에 대한 강한 열정과 탐구로 세계적 성과를 거둔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최진아 기자 gina@dgu.edu

# 풍성해진 공과대 실습작품 전시회

## 건축공학과 등 전공살린 다양한 작품전시로 눈길

공과대학 학과별 전시회가 지난 달 5일부터 원흥관에서 개최(開催)되고 있다. 이들 전시회는 공과대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직접 실습하고 작업해 만든 어반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주위의 눈길을 끌고 있다.

건축공학부의 33번째 전시회인 ‘The 33th Architecture Exhibition’은 지난달 18일, 서교동 GS 자이 갤러리에서 열렸다. ‘Dive to the diversity’라는 작품을 출품해 건축학전공에서 대상을 받은 배

태관(건축4)군은 “밤을 새며 새로운 걸 시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 굉장히 뿌듯하다”며 수상 소감(所感)을 밝혔다. ‘Dive to the diversity’는 청구역 근처의 아동·청소년 시설을 설계한 것이다.

전자공학과와 ‘Electronic Exhibition’은 지난달 9일,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은 총 15작품이며, 그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알리미’라는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옷

이나 장식품에 초음파 센서를 장착해 3m이내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알리미’ 제작(製作)에 참여한 유상준(전자공4) 학생은 “처음부터 많은 시행착오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졸업 전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계공학과가 개최한 ‘제 14회 기계전시회’는 지난달 5일 원흥관 1층 공용공작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계공학과와 여러 소모임이 참여했으며 총 10개의 작품이 전시(展示)됐다.

한편, 지난 달 19일에는 화공생물공학과와 ‘화공 Process 展’이 원흥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9개조가 참여해 ‘흔들면 차가워지는 물병’ 등 다양한 작품이 출품(出品)됐다.

화공 Process 展의 출품작 중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다용도 액정 블라인드’로 노트북 등의 LCD 제품을 사용할 때 빛에 의해 화면이 보이지 않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대상을 수상한 4조 담당교수인 홍성규 교수는 “학생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이론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구현해 본다는 것이 전시회의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컴퓨터공학과와 ‘2009캡스톤디자인발표회 및 S/W경진대회’는 오는 15일 정보문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슬비 기자 beeya@dgu.edu

# 2009년 동계 문과대학생 중구립도서관 인턴십 참가자 모집

동국대학교 문과대학이 시행하는 '09년 동계 문과대학생 중구립도서관단 중구립도서관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프로그램명**: 문과대학생 중구립도서관 인턴십 프로그램
- 2. 선발인원**: 총20명(3주이상자 과반이상 선발)
- 3. 연수기간**: ~2009.12.22(화)부터 최소1주(5일), 2주(10일) 또는 최대3주(15일) 기간 및 시작요일 선택가능. 근무가능일: 화~일 09:00~18:00, 휴관: 매주 월요일, 12월25일, 1월1일
- 4. 지원지역**: 문과대학생 또는 문과대학 복수전공자
-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12.2(수) ~ 12.09(수) 13:00~17:00,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 6. 제출서류**: 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1부(소정양식)
- 7. 선발일정**: 가. 서류접수: 12.09(수) 17:00까지 (기한 경과시 접수 불가) 나. 최종 연수자 확정: 2009.12.10(목) 다. 사전직무교육: 2009.12.17(목) 17:00,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 8. 연수생 지원**: 가. 학점: 전공 1-3학점 인정(과목명: 현장실습, 성적: P/F - 3학년 이상은 전문과목으로 인정) ※학점은 현장실습 규정에 의거 학점인정이 가능한 참여자만 인정하며, 학점인정이 불가한 참여자는 본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없음 나. 현장실습 기간 식대지원: 기間に 경비 지급
- 9. 본 프로그램 신청 불가자**: 가. 방학 중 현장실습으로 6학점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의 누계가 12학점 이상인 자 나.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다. 2010년 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자 라. 8학기 수료자
- 10. 기타 유의사항**: 가. 교내외 타 현장실습 연수프로그램과 중복 참가 불가 나. 본 현장실습은 별도의 수강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 다. 본 연수는 중도 포기 시 학점 인정 절대 불가 라. 휴학생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하며, 방학 중 1회에 한해 최대 3학점 인정 가능
- 11. 문의**: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

문과대학장

# 사회교육원 겨울방학특강 수강생 모집

개강일정	담당교수	강의시간및 요일	수강료	개강일정기간	강의실
기문정명학 초급 특강	김기정	목 10:00~12:00	100,000원	2009.12.24 8주(16시간)	KB 257
기문정명학 중급 특강		목 14:00~16:00	100,000원	2009.12.24 8주(16시간)	KB 257
미술심리지도사 초급	이명은	토 10:00~17:00	330,000원	2010.1.2 7.5주(45시간)	KB 256
미술심리지도사 중급		수 10:00~17:00	330,000원	2010.1.6 7.5주(45시간)	KB 256
육임 초급 특강	이우산	화 14:00~16:00	100,000원	2009.12.29 8주(16시간)	KB 257
육임 중급 특강		화 17:00~19:00	100,000원	2009.12.29 8주(16시간)	KB 257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기초-주중	김선태	월, 수 10:00~13:00	330,000원	2009.12.28 7.5주(45시간)	KB 255
주산활용수학교육사 기초-주말		토 10:00~17:00	330,000원	2010.1.2 7.5주(45시간)	KB 255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심화-주중	이한성	화, 목 10:00~13:00	330,000원	2009.12.29 7.5주(45시간)	KB 255
기본학문 특강 (추기, 학어집)		월 10:00~13:00	100,000원	2009.12.21 7주(21시간)	KB 256
원전강독 (하사 총정리)	해각스님	수 10:00~13:00	100,000원	2009.12.30 7주(21시간)	KB 256
선무도 특강		목 19:00~21:00	100,000원	2009.12.24 8주(18시간)	대극전
하리악수 특강	구승모	월 14:00~16:00	100,000원	2009.12.28 8주(16시간)	KB 257

- ▶ 접수기간: 2009. 11. 30(월) ~ 12. 20(금)
- ▶ 접수방법: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http://eduilife.dongguk.edu>)
- ▶ 수강료수납방법: 가. 계좌이체 - 신한(140-002-017211 (예금주:사회교육원)) 나. 카드수납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 문의처: ☎ 02-2260-3730

사회교육원장

# 공과대학 학생 필수상담제도 시행 공고문

- 1. 시행목적**: 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학생실태 파악 나. 교과이수 체계 정립을 위한 사전지도 다. 진로 및 학습지도의 효율화 라. 공학교육인증 이수지도 마. 조기 진로설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취업률 제고
- 2. 시행시기: 2009년 2학기부터** 가. 일반상담: 교수별 상담시간 및 필요시 수시 진행 나. 필수상담: 매학기 2회 의무실시 - 실시시기:

학기	1차 상담	2차 상담	비 고
1	전년12/21 ~ 1/20	4/21 ~ 5/20	신입학생, 편입학생, 재입학생 및 복학생은 학적변동 즉시
2	6/21 ~ 7/20	10/21 ~ 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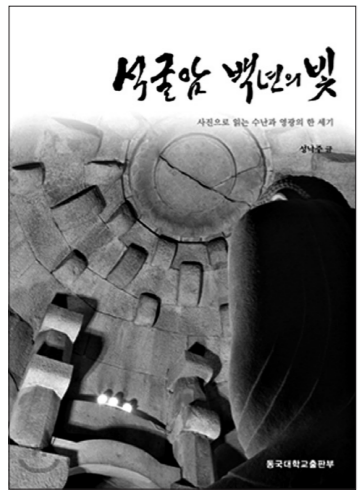
  - 상담방법: 학과사무실에서 사전에 상담일시를 정하고 상담시(양식) 제출 후 해당일시에 지도교수와 상담
  - 상담결과 확인: uDRIMS의 '통합상담/상담관리/지도교수상담'만족도 등록에 '1차 상담 여부'와 '2차 상담여부'에서 확인
- 3. 2010학년도 1학기 상담기간**
  - 1차 상담 기간: 2009. 12. 21 ~ 2010. 01. 20
  - 2차 상담 기간: 2010. 04. 21 ~ 2010. 05. 20
- 4. 유의사항**:
  - 1차 상담 미참여 시 수강신청 제한
  - 2차 상담 미참여 시 성적공시 열람 불가

공과대학장

### 이주의 새책

## 석굴암 100년의 변화상 한 눈에

홍예석(虹霓石) 등 근거 밝히는 자료 첫 공개... 전시회도 개최



석굴암 백년의 빛 (사진으로 읽는 수난과 영광의 한 세기) 지은이 성낙주 펴낸곳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0원 / 192쪽

우리는 흔히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싶을 때 사진 앨범을 들추곤 한다. 그곳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여과 없이 투과(透過)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개인의 일상(日常)을 넘어서 석굴암의 백년을 담은 '석굴암 백년의 빛-사진으로 읽는 수난과

영광의 한 세기'가 출간(出刊)됐다. 석굴암은 1,200년 전 신라인에 의해 빛어진 불후의 걸작으로 지난 세기 말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우리 겨레의 보물(寶物)을 뛰어넘어 세계인의 보배로 인정받고 있다. 총 세 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석굴암 백년의 빛'은 1909년 석굴암의 모습을 처음으로 담아낸 사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석굴암이 겪었던 상처(傷處)와 아픔의 역사, 그 아픔의 단편들을 모아 놓았다. 누구든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굴암이 현재 모습까지 이르는데 많은 고난(苦難)이 있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책 속에 나와 있는 석굴암의 상처는 지난 1910년 8월 이후 일본에게 우리의 국권(國權)을 강탈(強奪)당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일제에 의한 석굴암 보수 공사는 석굴암에 낫지 못할 상처만을 남길 뿐이었다. 일본은 총 3차까지 진행된 보수공사에서 석굴암의 석실 외각에 시멘트 두껍 공사를 시공해 누수(漏水)를 발생시켰고, 이는 석굴암의 훼손(毀損)을 야기(惹起)했다.

누수를 막기 위해 설치된 증기 보일러 역

시 석굴암의 향후 보존에 치명적(致命的)인 해를 끼칠 뿐이었다. 이렇듯 이 책에는 50년간 일제가 석굴암에 저지른 만행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하지만 이 책에는 석굴암의 아름다움이 담겨있지 않다. 1200년의 오랜 세월 동안 찬란했던 석굴암의 아름다움 또한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른 아침의 햇살이 석굴암 굴내로 스며들 때 자연과 조각상이 만들어내는 신비한 광경, 일본도 탐을 내어 모험까지 만들게 했던 석굴암의 아름다움 및 석굴암 전체도 등도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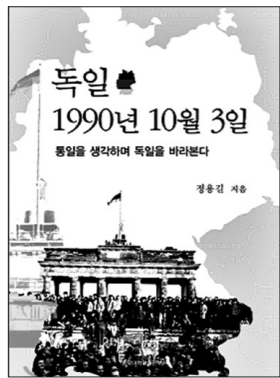
또한 '석굴암 백년의 빛' 책의 마지막에는 우리대학 고(故) 교수님 교수가 소장한 석굴암 사진 및 우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석굴암 연표(年表) 등을 부록으로 실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석굴암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책 출간과 더불어 '석굴암 백년의 빛' 사진전 또한 열렸다. '석굴암 백년의 빛' 사진전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12월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열릴 예정(豫定)이다.

백선아 기자 amy@dgu.edu

### 화제의 책

## “장벽은 전쟁이 아닌 교류로 무너진다”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지은이 정용길(정치외교학과 교수) 펴낸곳 동국대학교출판부 28,000원 / 574쪽

법고창신(法古創新). 이는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올해로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은 독일을 보며 생각해야 할 사자성어이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평화적 혁명과 서독의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 지금의 남북한보다 비교적 활발한 교류 등 수많은 요소들에 의해 이뤄졌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교훈들을 담은 한 권의 책이 있다. 우리대학 정치외교학과 정용길 교수가 쓴 '독일 1990년 10월 3일-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보다'가 바로 그 책이다.

'1990년 10월 3일'에는 독일의 분단과 동서독의 통일 과정 그리고 통합과정 등이 담겨 있어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배울 점들을 제공한다.

1·2차 세계대전으로 세계가 느꼈던 독일의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공산주의를 확산(擴散)시키려는 소련의 팽창정책 등은 독일을 동독 그리고 서독으로 분할(分割)시켰다. 이어 미·소간의 냉전 및 독일분단의 상징 베를린 장벽의 건설돼 독일의 통일은 꿈과 같이 까마득한 일로 변해가는 듯 했다.

하지만 분단 후 동·서독은 그 꿈만 같았던 통일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며 꾸준한 교류를 이어갔다. 그들의 교류는 서베를린이 동독에 있었던 실정 및 동·서독간의 사이가 남·북 전쟁을 겪었던 우리와 달리 나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활발한 교류의 결과 1989년 11

월 9일 '베를린 장벽'은 허물어졌고, 동독은 평화적 혁명을 성공시켰다. 그리고 통일 조약, 동·서독과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한 2+4조약 등을 통해 1990년 10월 3일 그들은 꿈과 같던 통일을 이뤄냈다. 하지만 독일의 통일은 완벽하지 않았다.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에는 엄청난 실업난이 발생했으며 '오씨(Ossi)와 베씨(Wessi)의 마음의 장벽' 등 많은 후유증(後遺症)이 생겨났다. 이렇듯 이 책에는 독일의 40여년 분단의 역사와 그 이후가 많은 예시를 통해 압축(壓縮)돼 있다. 책의 마지막에는 통일 이후 통합된 독일의 종선과 그 결과를 보여주며 독일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되길 바라는 글쓴이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독일 1990년 10월 3일-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보다'는 독일의 과거,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시사하고 있어 남·북 통일을 바라는 독자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한편, 정용길 교수는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올해의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 조상식 교수의 독서산책

## 창조적 발견의 기원을 찾아서



생각의 탄생 지은이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옮긴이 박종성 펴낸곳 예코의서재 17,000원 484쪽

20세기 최고의 해택을 누리었던 전문기능인(specialist)의 역할은 디지털 지식기반 사회에서 그 임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다. 오히려 시대정신은 고전적인 교양인으로서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근대 서구의 학문 분화과정으로 인해 학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창의적 과제 수행이 방해받아 왔다는 고찰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지식의 구조와 실재를 끊임없이 분리해온 서구 학문은 결정적인 전환기에 있다. 월러스틴(I. Wallerstein)이 '유명적 보편주의'에서 서구 학문의 자기 변신 과정을 이른바 '과학적 보편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비판한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루트-번스타인 부부(Michèle & Robert Root-Bernstein)가 쓴 '생각의 탄생'은 이러한 서구 학문의 조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책이다. 본래 제목이 '천재의 섬광(Spark of Genius)'

인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었던 교양인들의 사고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고유한 능력인 창조적 사고에 관한 연구서이다. 비록 우리 범인(凡人)들에게 부담스러운 천재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매우적인 창조성의 발현을 해명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창조적 성취가 보편적 교양인(generalist)의 사고패턴이기에 새로운 지식의 질서를 찾고자 하는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은 상당히 크다.

필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받은 인상은, 책의 성격이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통섭이론(統攝理論)'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 사고와 지식의 구조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일종의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 시도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서구 18세기 천재미학의 전통을 획기적인 발견이나 창조적 사건에 다시 적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예술가, 인문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의 단계(인지 認知)를 지나서 새롭게 느끼고(공감 共感) 실용적으로 만드는 단계(제작 製作)를 성실하게 추적하고 있다.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필자에게 이 책은 독특한 학습 이론을 표방하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지금까지 인간의 학습 현상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학습의 과정은 으레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단순한 지식에서부터 난해한 이론이나 법칙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이것이 바로 학습과제이며, 각 학습 과업에는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인 교육목표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학습 장면에는 비교적 고정된 교육과정, 일련의 계열화된 학습과제 그리고 평가받아야 할 학생이라는 세 요소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학습현상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대체로 교수자의 의도적 교육목표와 그에 도달하는 학습자의 특성 분석을 일치시키는 '모형화(modelling)' 시도로 나아갔고 기껏해야 학습의 결과를 중심에 두고 역방향으로 학습현상을 설명해 왔다.

반면에 이 책은 창조적 사고의 돌연한 계시와 통찰(洞察)을 전통 철학적 개념인 직관이나 초(超)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의 유명한 말인, "과학자에게는 예술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가 근거로 인용된다. 대체로 이러한 설명방식은 과학자와 예술가의 사고과정의 놀랄 만큼 흡사(恰似)하다고 가정하고 느낌, 감정, 직관을 중요하게 다룬다. 요컨대 새로운 사실의 발견, 진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상상력과 직관에 의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고 각자 내면에 깊이 숨어 있는 창조의 본능을 발굴하고 일깨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학과 교수)

### 2009 동계방학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대상 : 2010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접수방법 : 취업지원센터(본관3층 - 선착순 마감)
- 세부사항 : 홈페이지 참조([http://www.dongguk.edu/html/student/center\\_main.jsp](http://www.dongguk.edu/html/student/center_main.jsp))
- 문의 : 2260-3055, 3056

사업명	내용	캠프기간	인원	참가비	접수기간
미니MBA 캠프	전통적 경영이론보다 변화와 미래경영혁신전략적 사고마인드 등 실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커리큘럼 구성, 5가지 주요 직무소개를 통한 맞춤형 취업 전략 수립	2009.12.19(토)~12.23(수) (4박5일 합숙)	선착순 40명	3만원	11.27(금)~12.10(목)
6시그마 GB 과정	기업 실무에 즉시 활용이 가능하며, 입사시 기업에서 선호하는 경영혁신인증자격증인 6시그마 GB 자격을 40시간의 합숙교육을 통해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	2009.12.19(토)~12.23(수) (4박5일 합숙)	선착순 40명	3만원	11.27(금)~12.10(목)
취업스킬 마스터캠프	단기간 합숙집중교육으로 취업목표설정, 입사서류작성법, 영어인터뷰스킬 향상, 면접역량강화 등을 통해 취업자신감 및 취업스킬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2010.1.13(수)~1.15(금) (2박3일 합숙)	선착순 44명	3만원	12.7(월)~12.17(목)

\* 교육비용이 50~60만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 국고 지원을 통해 참가비(기본운영비) 3만원만 납부하시면 참여가 가능함.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 기말고사내 열공국수 무료제공 및 매장연장 운영안내

- 열공국수 제공안내
  - 일자 : 2009. 12. 07(월)~9(수) 3일간
  - 장소 : 상록원2층 학생식당
  - 배식시간 : 오후 8시30분~오후 9시30분까지

#### 2. 시험기간 상록원 식당, 매점 운영안내

구분	상록원학생식당	상록원분식당	상록원매점	비고
평일	정상운영	정상운영	12. 7(월) ~ 10(목) 21:30까지 운영	임대매장 정상영업
토요일	12/5(토) 10:00 ~ 14:00 한식 1종 배식	12. 5(토) ~ 6(일) 12. 12(토) ~ 13(일) 오후 7시까지 운영		
일요일	휴무			

#### 3. 문의전화 : 02-2260-8949(권영준)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변종필**  
법학과 교수

**달하나 천강에**

**대학생활의 낭만(浪漫)**

강의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조언을 심심치 않게 하곤 한다. 사투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傾聽)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정작 이 말처럼 식상한 말도 없을 게다. 대학 올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또 질리도록 해온 것이 공부인데 대학 강의실에서조차 들으니 얼마나 지겨울 것인가. 그러나 어찌하랴,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요즘 들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새삼스레 가슴에 와 닿는다. 젊음은 대체로 때가 있다는 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음은 언제나 그 자체로 가능성이자 실현이요 현재이자 미래인 불가능의 특성을 지녔기 때문일 게다. 한 때는 나도 '때가 있다'는 말을, 지금의 때에 맞춰 해야 할 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치솟는 욕구나 갈망을 잠재우기 위한 어른들의 상투적인 술책에 불과할 뿐이라고 못내 그 가치를 폄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삶의 궤적이 쌓일수록 일반적 경험칙(經驗則)은 이 말이 매우 믿음직한 교훈임을 말해주는 듯하다. 특히 그 중에 하나, "공부는 젊었을 때 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내세울 수 있는 확실한 경험칙일 게다. 물론 그 간의 쌓인 억압감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심리도 있을 테고, 또 인간은 필연적으로 놀기도 해야 하는 존재임을 감안하면 지난 시절 경험하지 못한 낭만과 풍류를 대학에서 만끽하고픈 것도 당연지사일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에서 지적 탐색과 낭만의 향유(享有)를 적절히 조화시킬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실연으로 가슴앓이 하다 또 다른 자기로 돌아가는 것, 전공과는 무관한 공부에 혼이 빠져 전공학점에 F를 받는 것, 손에 잡은 책이 너무 재미있어 다음날 수업에 결강하는 것, 동호회를 통해 인간간의 사귀기를 배우거나 학회활동을 통해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밤 세워 논쟁을 벌이는 것, 이 모두는 오직 대학에서만 가능한 공부이자 낭만이다. 대학의 공부란 삶에 대한 전체적 패턴을 짜는 일이다. 이 사회 속에서 나를 어떻게 키워 갈 것이며, 이를 통해 동료인간과 사회의 전체적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다. 인생의 꿈은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부딪히기 마련이고, 세상은 온갖 도전의 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삶의 근간(根幹)을 세우는 이런 공부를 지금 여기서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성연미** 국어교육과 1985졸  
봄은 커뮤니케이션 대표

**동문칼럼**

**미디어 스피치**

최근 들어 말 한 마디로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온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사례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얼마 전 '대한민국이 싫다'라는 말 한마디로 결국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아이들 가수의 사례, 모 인사의 여학생 비하 발언으로 엄청난 항의를 받아야만 했던 일, 이외에도 말로 인해 봉변(逢變)을 당하는 사례가 생각 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공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미리 안다면,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 속의 스피치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말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스피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정보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전파되는 '미디어 시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미디어 스피치'라고 할 수 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말했던 친구와의 대화, 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자리의 인사말, 방송중이 아

니더라도 모든 공식석상의 말들이 모두 미디어 스피치인 것이다. 자기의 말을 들은 누군가가 있고 그 말이 미디어를 통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말은 결국 '미디어 스피치'이고 '공적인 스피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미디어 스피치의 시대에서 말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정보 전달 전문가인 아나운서의 스피치의 4가지 특성(特性)을 살펴봄으로써 미디어 스피치를 실행해 보자.

첫째, 긍정 언어를 사용하라. 긍정언어는 무조건적으로 긍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비판이 아닌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는 말을 의미한다.

둘째, 맞춤 언어를 구사하라. 어떤 상황이라도 자신의 의견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훨씬 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나 악수를 했습니다'를 일반적인 정보라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이란 오바마 대통령이란 악수를 했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대하는 상대가 나이가 많은지 어린지, 지식인 계층인지 아닌지, 상급자들인지 아닌지 등등에 따라 대하는 예우(禮遇)도 달라지는 맞춤형 언어로 상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음성 표현을 정확하게 하라. 흔히 목소리에 대한 고민 중에 어린 어투의 학생들의 고민이 많다. 어린 어투는 흔히 발음을 절반만 하거나 어린 마음으로 말하기 때문인데, 이는 조음기관을 부지런히 움직여 온전한 발음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면 거의 모두 나아진다.

넷째, 이성언어를 활용하라. 이성언어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언어를 의미한다. 말하는 자세와 태도, 자신의 철학이 바탕이 된 진실된 스피치만이 모두에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기업체 면접에서 스피치로 인해 좋은 성적을 얻고 싶다면, 이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싶다면, 평생 갈 친구를 얻고 싶다면, 모든 동학의 후배들이 미디어 스피치를 활용해 보길 바란다.



**호형일**  
IT 학부 1학년

**학생칼럼**

**공대상담 구체적 프로그램 필요하다**

이번 공대 교수님과 상담에 대해 내 주변 동기들의 평가는 극과 극이었다.

공대상담이 좋았다고 말한 동기들은 자신이 그동안 어떤 과목을 이수(履修)하는지, 선배들의 취업 상황 등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알았다고 했다. 또한 교수님과 상담동안 궁금했던 것 외에 학교생활과 같은 다른 고민거리들에 대해 조언을 받고 상담(相談)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교선배를 통해 휴대폰 문자로 갑자기 상담을 강요하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았다. 특히 상담을 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에 제약이 있다는 말은 너무 강제로 적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다. 이런 경험을 한 학생들은 내 주위에도 많다. 또 내가 속한 IT학부의 경우 지망하는 과가 아닌에도 다른 과의 교수님이 담당교수님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지망(志望)하는 전공에 대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다고 말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리고 교수님마다 상담 내용도 달라 이번 상담제도에 대한 평은 극과 극이었다. 상담할 때 교수님의 대답이 구체적이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 학생들의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리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교수님이 상담을 이끌어 주실 줄 알고 간 학생들은 이번 상담이 단지 교수님과 안면 트기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푸념하는 친구도 있었다. 상담이라는 목적이 잘 성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번 교수와의 상담은 취지는 좋았다. 자신의 전공에 대해 심화시키고 그것 외에 의견을 상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학부라는 특성 때문에 지망전공이 되어 있어 자신의 전공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오점이 있었다. 또한

교수님들께 상담방법 및 상담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인상이 강했다.

상담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있어서 보완(補充)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한다. 상담을 학기 초 배정받은 교수가 아닌 전공 결정 후인 1학기 말이나 2학년 때 담당교수를 바꾼 후에 진행한다면 상담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입학 초에 자율적으로 지망학과 교수님을 담당 교수로 선택하는 제도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상담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상담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외부 사례(事例) 등을 연구해 보다 보완된 상담이 이뤄진다면 훨씬 좋은 상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가(悲歌)**

- 정원용 박사를 애도하며

**독자투고**

김호성 / 불교학부 교수

아, 옥십여 성상(星霜)은 그리도 짧고 여드레 아흐레는 그리도 길었던가

여름 방학  
꼭 여드레 동안 일본을 다녀왔는데

남산(南山) 산책로 한 모퉁이 돌아서면  
합장한 정 박사님 키도 클 것 같은데

"영? 이 무슨 소리?"

"청년 실업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불교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원용 박사가 급서(急逝)하여  
장례까지 다 끝났다

시대의 화두 고뇌하던  
노(老)학인

한 아름 가득  
책 안고 가셨다니

(2009. 11. 23)

학술 열반(涅槃)  
공부 왕생(往生)

\* 정원용(1942~2009) : 서울대 법대 졸업 후  
한전 입사, 한전 이사로 퇴직 후, 불교학과에서  
원호 연구로 석사와 박사학위 취득.

**동국대학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사업단(GTEP)  
특별 요원 모집 공고**

- 신청 일자: 2009. 12. 07~2009. 12. 17
- 신청 자격: 국제 무역에 관심 있는 동국대학교 1,2학년 (5학기 미만) 재학생 (토익 600점 수준이라고 인정 되는 자)
- 신청 장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 4층 GTEP실
-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성적 증명서, 제출가능 외국어점수 (TOEIC, JPT, HSK, TOEIC SPEAKING 7급 이상 등)
- 특 전: GTEP 요원 선정자에게는 다음의 특전 제공
  1. 동국대학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정예 요원활동 기회 부여
  2. 해외인턴 비용 제공
  3. 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4. 우수요원 지식경제부 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5. 토익 장려금 지원 및 해외석학 초빙 강의 제공
  6. 무역협회 및 지식 경제부 주관 무역관련 최우수강사 초빙 특강 무료
  7. 취업지원
  8. 국제 비즈니스 실제 업무

기타 문의사항은 본부장 H.P 010-4105-6379 으로 연락바랍니다.

**동국대학교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단장 이승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 불교출판문화협회 주관

**2009 불교출판문화상 우수상 올해의 불서10 선정**

소설 **저울의 인간**

강렬한 기백이 관통하고 있는 선(禪) 소설의 정수

“일본에서 백만 독자를 울린 언어의 연금술사, 나오키상 수상작가 다치하라 마사아키(본명 김윤규)의 자전적 소설”

작가 그려준 한국불교의 모습은 내 자신이 꿈꾸는 이상화된 모습의 한국불교일 수도 있다. - 김호성(원불교사연구소장)

이 소설은 세대간, 민족간, 국가간, 그리고 식민지 경험과 '전후' 사이의 다층적 분열 혹은 대립의 화해를 통해 자기 해방을 모색하고 있다. - 박광현(동국대 국문과 교수)

다치하라 마사키 지음 | 김형숙 옮김 | 신국판 296쪽 | ISBN 978-89-961004-61  
값 11,000원 | 문의 02)2264-3483

도서출판 한림을 더는 동국대학교출판부의 제베르먼트입니다.

한국정치학회

**2009 올해의 학술상 수상도서**

독일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통일 독일을 보며 한반도를 생각한다!  
지금,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을 해부해야 한다.

독일 통일과정의 파노라마를 한 권에 담은 **통일 오디세이!**

저자 정용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국판 양장 | 575쪽  
ISBN 978-89-7801-248-5  
값 28,000원

동국대학교출판부  
문의 02)2260-3483



시론

교사 징계와 표현의 자유

김승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토목공사시 권력 행사에 맞서 교사들도 시국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6월 18일 1차 시국선언에 이어, 7월 19일 교사들은 다시 2차 시국선언을 감행(敢行)했다.

이에 교과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정진후 전 교조 위원장 등 89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지시하고,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를 내리라는 징계지침을 시달하였다. 교과부가 내세우는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가 규정하는 집단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에 전념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結託)하여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

는 법조항을,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집단행위금지의 입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집단행위는 당연히 허용되고 보장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이 교사의 집단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마저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교사를 포함하여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다만,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에는 교사의 직무전념의무와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한계가 덧붙여질 뿐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이 제정(制定)된 지 만 51년이 되는 1999년 7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교사들이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동안 ILO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해 왔다. 교사는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의

사표현의 범주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은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도 인정되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교사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해석이 있을 수 있는가?

또한 우리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권한사항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등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위원회의 권한사항이다.

물론 징계처분은 처분권자가 하지만, 그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기속(羈束)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도 전에 징계지침을 결정하고 이를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하였다. 마치 판사가 판결을 하기도 전에 법원장이 판사에게 판결의 지침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MB정권은 법과 원칙을 병자(憑藉)해서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것이다.

사설

학생들의 참여의식 확대돼야

서울대, 이화여대 등 각 대학의 2010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투표함을 몰래 열어 보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하고,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재투표를 실시했다. 이화여대도 지난달 15일 선관위가 경고 누적을 이유로 특정 후보를 등록 말소했고, 이에 일부 선관위원과 다른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파행(跛行)을 겪었다. 부산지역 대학들에서는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대리투표, 부정투표, 후보자적 시비, 후보자의 성추행 논란, 후보 사퇴 등 최근 기성정치권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대전 모 대학에서는 총학생회의 이권을 쥌기 위해 조직 폭력배가 총학생회장 후보에 출마, 상대후보에 폭력과 협박(脅迫)을 행사하는 영화 같은 일도 벌어졌다.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까지 기성 정치권의 구태(舊態)를 그대로 답습(踏襲)한 꼴이다.

총학 선거가 이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 데는 과거 민주화운동시기에 사망감을 앞세웠던 후보들과 달리 학생회 간부직을 권력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후보들의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학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탓이 크다. 또 온갖 편법과 부정을 일삼는 그릇된 선거 풍토를 만든 기성 정치인들의 행태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최근 일련의 불법·부정선거로 인해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不信)이 점차 커지는 현상은 우려할만 하다. 이같은 문제는 학생회를 꾸려가는 일꾼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학생들의 무관심에 기인한다. 총학생회는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떠한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고 시대를 향해 양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학생자치기구의 꽃이다. 그러나 그 꽃은 학생들 스스로의 관심과 애정이 담길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얼마전 우리대학교 선거가 끝났다. 일부의 다른 대학들처럼 불참사도 없었고, 파행을 겪지도 않았다. 다만, 다른 대학들처럼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무관심은 여전한 듯 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사회의 참여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메아리

사람 없는 광장(廣場)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우리는 광장을 박제화하거나 고부가가치의 상업 행위 대상으로 몰아감으로써 도시가 현재에도 기능하는 존재임을 망각하고 과거의 세트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위협에서 구해야한다' 광장의 역사 및 정체성을 심도 깊게 연구한 책 '광장'(Squares of Europe, Squares for Europe)의 저자 프랑코 만쿠조는 서문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과거 인류의 화합과 교류의 장소였던 광장의 모습이 사라지고 상업적 관광지로 변모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만들고 꾸민다고 해서 모두 광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광장의 생명력은 시민 공동체의 자발성(自發性)과 창조성(創造性)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KBS 드라마 '아이리스'의 총격 및 차량폭발 장면 촬영으로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방향 도로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

제됐다. 도심 한복판인 광화문 일대를 휴일 한낮에 12시간이나 통제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가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는 "아시아와 유럽 판매가 추진 중인 한류 드라마 '아이리스'를 통해 광화문 광장 등 서울의 모습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해 적극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드라마 촬영을 위해 차량통제 및 대낮 12시간을 협조해 준 것에 대해 '편파적(偏頗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협력해주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민단체의 문화 행사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을 동원

해 연행했고, 그 후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자유로운 통행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 및 문화행사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율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듯하다. 현재 광화문 광장의 모습은 프랑코 만쿠조가 경고하고 있는 광장을 과거의 '세트장'으로 전락시키는 위험상태에 이르렀다. 광장의 중심은 사람이다.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이 철저히 배제(排除)되어있으며, 대신 그 자리는 각종 시설과 불거리로 채워져 있다. 공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일궈내고 삶의 흔적을 남길 때 비로소 광장이 될 수 있다. 광화문 광장은 아직까지 넓은 공터로만 남아 있는 듯하다.

만평



이제 예술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MB  
작품명: 삼정공화국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 전시실  
백 선 아 기자 amy@dgu.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김용현, 편집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11월 프로그램 안내, 기말고사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 금주의 식단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11월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1. 기간 : 2009. 12. 7 ~ 24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2. 일시 : 월 ~ 금요일, 14 : 00~
3. 장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A/V실
4. 상영영화 : 세 번째 소원 등 15편

Table with columns: 테마, 날짜, 영화/감독, 국가, 러닝타임. Lists movies like '세 번째 소원', '아주까리', '아기가 생겼어요' etc.

- 5. 관람방법 : 직접방문, 안내자료 수령 후 관람(무료)
6. 문 의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 (02-2260-3452)

\* 인권영화상영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협조로 이루어짐.
\* 1. 영화 소개 자료 및 음주소 제공.
2. 상영영화는 멀티미디어실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중앙도서관장

기말고사 기간 중 도서관 이용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2009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12.7~18일) 중 대학 분위기 조성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1.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Table with columns: 건물, 구분, 개관시간(토, 일요일 포함), 비고. Shows extended hours for the library during exam period.

단, 멀티미디어실(중앙도서관, 법학도서관) 개관시간은 학기 중과 동일
\* 좌석 사석화, 한 사람이 여러 자리 잡아 주기 등 비양심적인 행동 금지

2. 강의실 대관서비스

가. 목적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 일부를 도서관 명의로 대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내 하오니 학생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 바랍니다.

나. 강의실 대관 : 시험기간 중 비어있는 강의실을 도서관 명의로 대관

- (1) 강의실 이용시간 : 07:00~13:00
(2) 대관된 강의실 :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다. 강의실 조회 시스템 안내 :

- (1) U-Drims 시설대관 신청에서 확인 가능
(2) U-Drims -> 대관신청 -> 교내시설 -> 신청하기 -> 빈강의실 조회
(3)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 예정
(4) 강의실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앙도서관장

금주의 식단

Table with columns: 동국관, 월(12/7), 화(12/8), 수(12/9), 목(12/10), 금(12/11). Lists menu items like '선삼계구이', '모듬장조림', '치킨탕수' etc.

# 유일무이의 거미박물관 '아라크노피아'

## 국내 1호 거미 박사 김주필 교수, 200억대 거미박물관 우리대학에 기부



어두운 몸 빛깔의 털이 달린 거미는 동서 양을 막론하고 혐오(嫌惡)와 공포의 대상이었다. 고대 로마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 추앙(推仰)받는 카이사르는 거미를 볼 때마다 쟁쟁게 먼 곳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어미의 배속을 갇아 먹고 자라나는 거미의 습성에 치를 떨어 보는 쪽쪽 거미줄을 거뒀다. 이와 같이 '거미' 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흐드는 사람들은 세계 유일무이의 거미 박물관인 '아라크노피아'를 방문해보자. 무당거미, 호랑 거미 등 수많은 개체만큼이나 재미난 이름과 다양한 매력(魅力)을 지닌 거미와의 만남을 추천하는 '아라크노피아'에는 특별함이 존재한다.

### 40년의 거미 열정

국내 거미 분야를 개척(開拓)하고 40년간 거미 연구에 매진해온 우리대학 김주필(생명과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1호 거미 박사이다. 그가 발굴한 신 거미 종만 약 140종. '아라크노피아' 역시 거미 채집을 위해 주말마다 전국을 누빈 그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거미에 대한 그의 사랑은 남다르다. 1980년대 국제거미학회 도중 독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던 학자들 앞에서 직접 독거미에게 물리는 실험을 감행(敢行)한 것은 지금까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진다. 최근 그는 평생 동안 일궈낸 200억대 가치의 '아라크노피아' 및 전시품 일체를 우리대학에 기부했다. 김 교수는 "개관을 준비하던 시절부터 박물관은 개인 소유가 아닌 사회에 환원해야 할 시설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며 "온 국민이 생태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국대에서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세계 유일한 박물관 아라크노피아. 김주필 교수의 열정(熱情)이 담겨 있는 이곳을 찾아가보자.

### 두가지 천국을 즐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진중리에 위치한 '아라크노피아'(Arachnopia)는 거미 박물관(博物館)이다. 아라크노피아는 거미류(Arachnida)와 천국(Utopia)의 합성어로 '거미 천국(天國)'을 의미한다. 아라크노피아에는 김주필 교수가 전 세계에서 채집한 25만 마리의 거미 표본이 전시돼있다. 또한 수백 종의 화석, 종유석 및 도자기, 불상 등 인문분야 수집품들이 박물관을 빼곡히 차지하고 있다. 박물관 외부에는 '생태 수목원'이라는 또 다른 천국이 존재한다. 50여점의 조각상들과 야생화가 즐비한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할 수 있다. 내년 봄에는 동물 표본실 및 미술관이 새로 건립될 계획이라고 한다.

### 거미야 놀자!

수많은 거미 표본(標本)과 살아있는 대형 거미 타란툴라가 전시된 본관 1층에 들어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이곳에서는 세상의 모든 거미들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새도 잡아먹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란툴라 '올리웃 버드이터',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등 붉은 꼬마 거미' 등 세계에서 1위를 앞다투는 거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색깔이 화려한 호랑거미, 긴 다리가 돋보이는 농발 거미 등 한국 땅거미도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도 직접 거미들을 만져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다. 사람을 무는 경우가 거의 없는 온순한 타란툴라 '로즈헤어'는 관람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김주필 교수는 "처음에 관람객들은 로즈헤어를 보고 무서워 뒷걸음질 치지만, 막상 만지면 대부분 거미의 부드러운 털에 매료된다"며 거미와의 교감(交感)을 추천했다. 거미와의 교감이 여전히 두렵다면 거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흥미롭게 전파해주는 이곳의 학예사와 동행해 보자.

### 이곳에서만 볼 수 있다

아라크노피아에서는 영화 '쥬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말벌이 박제된 호박 화석(化石), '박물관이 살아있다'에서 나타난 거대한 공룡의 화석 등 영화에서만 나타날법한 화석들을 만나볼 수 있다. 유일무이(唯一無二)의 화석들은 아라크노피아를 특별하게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꺼비, 조개, 나비와 잠자리의 희귀종들도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김주필 교수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전시품들을 소개한 아기자기한 팟말들도 눈여겨 볼만하다. '슈퍼맨이 싫어하는 방해석', '아이스크림 종유석' 등의 이름표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아라크노피아 생태 학교

아라크노피아는 거미 체험(體驗)학습이 가능한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1일, 1박 2일, 2박 3일 코스로 나뉘진 생태 학교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들에는 김주필 교수의 열

정이 녹아있다. 거미에 대한 강의, 거미채집, 표본 만들기 등 모든 프로그램이 김 교수의 지도하에 이뤄진다. 또한 생태 학교 강의의 교재 제작에서부터 거미 시험 문제 출제(出題)까지 모두 그가 담당한다. 생태 체험 프로그램은 거미에 대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김 교수의 열정으로 거미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로 다가가고 있다.

### 거미에게 애정을

자신이 베를 제일 잘 찐다고 자랑했다가 여신 아테나의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된 아라크네는 베에서 실을 뽑아 베를 짜는 거미가 되었다. 거미는 비록 아테나의 저주(詛呪)를 받았지만, 아라크노피아에서는 사람들의 애정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김주필 교수는 거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제안(提案)한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 고정관념 속에서 배척됐던 거미에게 애정(愛情)을 나눠주자는 그의 제안에 동조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신혜 기자 leeshin@dgu.edu  
사진 = 김윤수 기자 yshero21@dgu.edu

**TIP** (빠르게 가는 방법)  
3호선 옥수역에서 국수행 중앙선 전철 탑승 → 윤길산역 하차(약 50분 소요) → 서울 버스 이용(5인 이상만 서울버스 이용 가능, 031-576-7908로 연락) → 아라크노피아 도착(버스 탑승시 10분 소요)

(아라크노피아 이용정보)  
- 운영시간 : 09시~18시  
- 관람 소요 시간 : 40분~1시간  
- 입장료 : 성인 6000원, 소인 4000원(4세 이상), 30명 이상(각 1000원씩 할인)  
▲ 1일 체험학습 : 2만 5천원(중식 제공) ▲ 1박 2일 체험학습 : 7만원(숙식 제공)  
▲ 2박 3일 체험학습 : 12만원(숙식제공) ▲ 문의 전화: 031-576-7908

① 전 세계에서 채집된 25만 마리의 거미 표본들. ② 온순한 대형 거미 타란툴라 '로즈헤어'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 ③ 거미와의 교감을 제안하는 김주필 교수. ④ 동남아시아에서 채집된 희귀 나비 종(種).

## 지금 만족할 줄 알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지금 만족할 줄 알라.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비록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안락하니,  
이를 모르는 자는 천당에 있어도 편하지 않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자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하더라도 부자이다.

유교경

동국대학교 정각원  
TEL. 02) 2260-3016~8  
http://jeonggak.dongguk.edu

## 정각원 12월 정기법회 안내

구 분	일시	장소	강좌주제	강사, 법사
교직원 정기법회	12.8(화) 17:00~18:00	정각원 법당	아랍세계와 우리의 관계	정수일(무함마드 간수) 전 단국대 교수
정기법회	12.12(토) 10:00~12:00	정각원 법당	과학으로 본 대승기신론	소광섭(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12.14(월) 08:30~08:50	정각원 법당	월요 아침 예불	
	12.19(토) 10:00~12:00	정각원 법당	중국의 선	송목스님(동원정사 주지)
	12.26(토) 10:00~12:00	대각전	인도초기의 수행	황순일(불교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정각원